

— 하나증권 —

# 2024 산업 테마 가이드

리서치센터 미래산업팀 · 포트폴리오팀



# 목차



## 1. 바이오

① ADC(항체-약물 접합체)	2
② 알츠하이머 치료제	4
③ 비만 치료제	6

## 2. 인공지능

① AI 신약 개발	8
② 의료 AI	10
③ GPT 스토어	12

## 3. 반도체

① HBM	14
② 온디바이스 AI	16
③ CXL	18

## 4. 핸드셋

① OLED	20
② XR	22
③ 폴더블	24

## 5. 한류

① 엔터테인먼트	26
② 음식료	28
③ 소비재	30

## 6. 저출산

① 육아	32
② 반려동물	34
③ 고령화	36

## 7. 로봇

① 협동로봇	38
② 무인운반로봇	40
③ 스마트팩토리	42

## 8. 친환경

① 풍력	44
② 태양광	46
③ 수소	48

## 9. 인도

① 소비시장	50
② 스마트시티	52
③ 공급망재편	54

## 10. 국제 이슈

① 방산	56
② 우크라이나 재건	58
③ 우주 산업	60

## ADC 시대 개막, Next-Big Deal 기대감 고조

### 관전포인트

- 글로벌 제약사들은 2024년 가장 핵심적인 모달리티로 ADC를 주목
- 2023년 ADC 라이선싱 금액이 YoY 약 +85%를 기록하며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고조됨을 확인
- 국내 또한 2023년 연말, 레고켐바이오의 ADC 기술이 약 2.2조원에 L/O되며 기대감 증대
- 국내 대형사들의 적극적인 ADC 진출 계획과 함께 본격적인 ADC 시대 개막 전망

### 정의

ADC란 Antibody Drug Conjugate의 줄임말로 ‘항체-약물 접합체’를 뜻한다. ADC는 표적 특이성을 지닌 단일클론 항체에 링커를 통해 세포독성약리기전 특징을 갖는 저분자 약물을 탑재한 형태이다. 항체가 표적세포에 도달한 뒤, 세포 내부의 분해 효소에 의해 약물과 항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약물이 방출되는 형태인 표적 항암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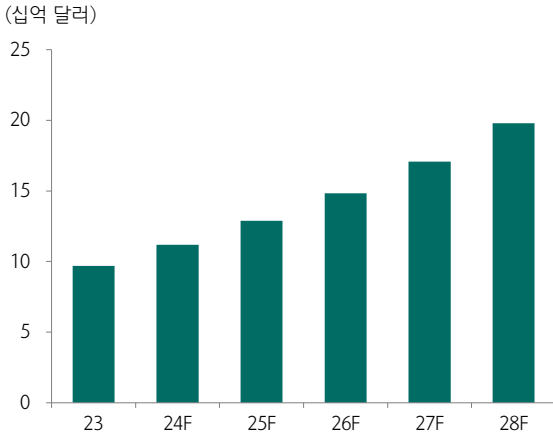
### 현황

작년 하반기 글로벌 바이오 딜을 살펴보면 ADC 관련 딜이 총 17건 이상으로 ADC는 글로벌 제약사의 핵심 모달리티로 주목받고 있다. ADC 관련 거래 금액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 ADC의 라이선싱 금액은 430억 달러로 2022년 233억 달러 대비 +84.5% 증가하였다. 반면 주요 모달리티 중 하나인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2023년 142억 달러로 2022년 294억 달러 대비 -51.7%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ADC가 다른 모달리티 대비 대형 제약사들에게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바이오텍들에게도 ADC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연말 레고켐바이오가 안센에 최대 2.2조원 수준의 대형 L/O를 성사시켰다. 기존에 국내 기업의 대규모 ADC 기술이전이나 M&A가 없었던만큼 해당 대형 L/O를 시작으로 국내 바이오텍들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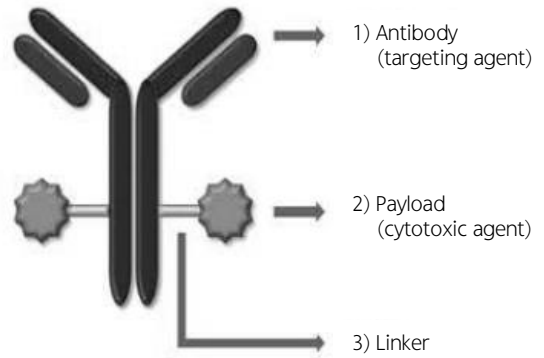
바이오텍 외의 국내 대형 바이오 업체들도 ADC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1월에 진행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ADC 상업 생산을 동사의 2024년 주요 목표로 발표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ADC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을 계획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국내 대형 바이오 기업의 ADC 시장 본격 진출을 통해 올해 본격적인 ADC 시장 개화가 전망된다.

## 글로벌 ADC 시장 규모 추이



자료: Marketsandmarkets, 하나증권

## ADC 구조



자료: 식약처, 하나증권

## ADC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DMO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 유지 전망</li> <li>2024년 ADC 공장 가동 등에 따른 성장 모멘텀 지속</li> </ul>
알테오젠	196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머크사와 글로벌 블록버스터 키트루다의 피하주사제 개발 협업</li> <li>기존 항체에 비해 더 우수한 결합력을 갖는 ADC 난소암 치료제용 항체 미국 특허 등록 완료</li> </ul>
레고캠바이오	141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ADC를 활용한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 안센사에 최대 2.2조원 수준 규모 기술 이전 성공</li> <li>27개의 AD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해 추가적인 기술 수출 지속 전망</li> </ul>
에이비엘바이오	298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혈액암 타깃 ADC 후보물질과 고형암 타깃 후보물질 개발</li> <li>고형암 타깃 후보물질을 레고캠바이오의 링커 기술과 접목해 기술 개발 진행</li> </ul>

자료: 하나증권

##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따른 대형 L/O 기대감

### 관전포인트

- 글로벌 제약사들의 치료제 개발에 따른 알츠하이머 치료 시장 개화 기대
- 난치병인 알츠하이머의 치료제 시장은 2050년 약 26조원 이상의 대형 시장 형성 전망
- 국내 바이오텍들은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접근을 지속하는 상황
- 올해 대형 L/O 가능성이 제기되는 신약 부문으로 주목 필요

### 정의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지기능 저하, 성격변화, 초조행동, 우울증, 망상 등 정신 행동 증상이 흔히 동반되는 질환이다. 정확한 발병 기전과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아 근본적인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다. 하지만 최근 핵심 기전 중 하나가 밝혀져 치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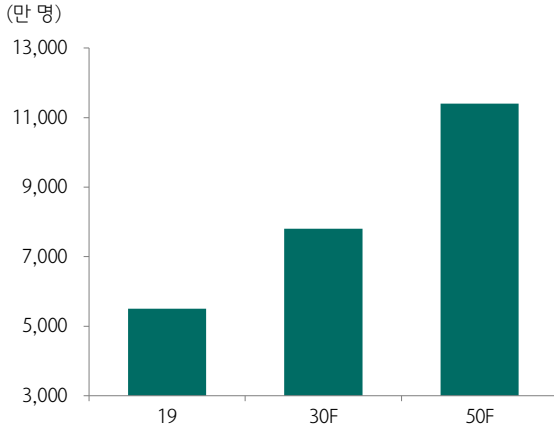
### 현황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은 2050년 약 26조원 이상의 규모가 예상되는 시장이다. 특히 기존까지 알츠하이머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고 지연시키는 수준에 머물러있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신약 등장과 함께 본격적인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항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레캠비(성분명 레카네맵)가 미국에서 정식 FDA 허가를 획득하며 시장에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레캠비는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하는 신약으로 임상 3상 연구에서 경도 인지장애 및 경증 치매 환자의 인지 및 기능 저하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 물론 나빠진 인지기능을 되돌릴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지금까지의 치료제가 증상 완화 효과에 그친데 반면 치매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일라이 릴리사의 도나네맵 등 또다른 치료제들도 등장하고 있다. 알츠하이머 병은 명확한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바이오텍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선제적인 시장 개화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경쟁이 전망되는만큼 또다른 기전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 시 초대형 L/O가 기대된다.

## 글로벌 알츠하이머 환자 수 전망치



자료: WHO, 하나증권

##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퀼비'



자료: 바이오젠, 하나증권

##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차바이오텍	085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반에서 추출한 기능성 세포를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는 치료제 개발</li> <li>알츠하이머병 치료제 1상과 2a상을 동시에 진행하며 모멘텀 지속</li> </ul>
유바이오로직스	206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타 아밀로이드 3가지 타입과 타우 단백질 2가지를 동시에 겨냥하는 알츠하이머 백신 개발 중</li> <li>5중 항체 알츠하이머 백신의 1상 임상시험계획 2025년 신청 전망</li> </ul>
엔케이맥스	18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사 엔케이젠바이오텍 23년 10월 FDA로부터 알츠하이머병 대상 임상 승인</li> <li>동사의 세포치료제 알츠하이머병 대상 미국 임상 1상, 2a상 환자 투여 완료</li> </ul>
이수엠지스	0868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타 아밀로이드 제거를 목표로하는 기존 치료제와 다른 기전으로 알츠하이머 치료 접근</li> <li>직접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하지 않고 축적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기전 연구 지속</li> </ul>

자료: 하나증권

# 바이오 비만 치료제

미래산업 Analyst 최재호 02-3771-7719 / chlwoogh2002@hanafn.com

## 본격적인 비만 치료 시대

### 관전포인트

- 노보노디스크社의 GLP-1 유사체 삭센다의 대형 성공으로 인해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 관심도 증가
- 제형의 변화, 신약 개발 등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연구되는 상황
- 2030년 약 130조원 이상의 거대 시장을 타겟하는 만큼 신규 게임 체인저 등장 기대감 존재
-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 비만 치료제향 L/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주목 필요

### 정의

체내에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이라고 한다. 주로 불균형한 식습관과 운동량 부족 등으로 인해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큰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최근 GLP-1 유사체가 식후 장에서 분비되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기존 치료 방식 대비 부작용이 덜하다는 연구 결과 등으로 인해 시장 내에서 게임체인저로 평가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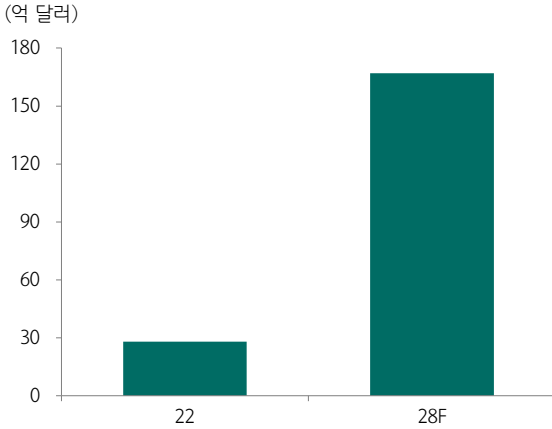
### 현황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GLP-1 유사체 삭센다는 2017년 미국에서 1일 1회 주사형 성인 비만 치료제로 승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비만 치료제 시장의 약 50%를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가 차지하면서 비만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GLP-1 유사체 후속작인 위고비를 출시하였고, 위고비는 출시 첫 해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노보노디스크의 성공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다. 일라이 릴리의 경우에도 기존 2형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를 비만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해 쥘바온드로 허가받은 상황이다. 두 글로벌 제약사를 필두로 본격적인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열리고 있다.

투자자들이 비만 치료제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먼저 삭센다를 출시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추이에 있다. 삭센다와 후속작 위고비까지 매출 급등을 가져옴에 따라 노보노디스크는 5년간 약 40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다. 위고비 또한 2023년 4월에 FDA에 공급 부족 의약품으로 지정되며 폭발적인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과수 상태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 개발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다양한 경쟁 약물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만 시장은 2030년 약 130조원이 전망되는 대형 시장이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성공에 따라 국내 바이오 업체들도 비만 치료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으로 글로벌 제약사향 기술이전 및 원천기술 개발 등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 전망치



자료: Evaluate Pharma, 하나증권

##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자료: Novo nordisk, 하나증권

##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한미약품	128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LP-1 계열의 차세대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진행</li> <li>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보유</li> </ul>
동아에스티	17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신약개발 자회사와 GLP-1과 글루카곤 이중작용제 개발 중</li> <li>주사 제형보다 간편한 형태인 마이크로니들 패치제로 변형을 위한 연구 또한 지속</li> </ul>
팜트론	087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비만, 당뇨치료제에 대한 물질이전계약을 통해 L/O 가능성 고조</li> <li>비만 치료제 관련 L/O 1조원대 이상 예상됨에 따라 주목 필요</li> </ul>
인벤티지랩	389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지속형 주사제 및 지질나노입자 전문 바이오텍</li> <li>유한양행과 비만 및 당뇨 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 계약 체결에 따른 기대감 고조</li> </ul>

자료: 하나증권



# 인공지능 AI 신약 개발

미래산업 Analyst 조정현 02-3771-7650 / chunghyuncho@hanafn.com

## 물질 발굴부터 임상 설계까지 AI로

### 관전포인트

- AI 신약 개발은 신약 허가 및 임상을 진행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에 더욱 효율적
- AI를 적용 시 임상시험 단계에서도 최적의 신약후보 물질 탐색이 가능하며 시행착오를 줄임
-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은 2023년 약 1.2조원에서 2028년 6.4조원으로 고성장이 전망됨
-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신약개발 플랫폼 투자 확대는 지속되는 중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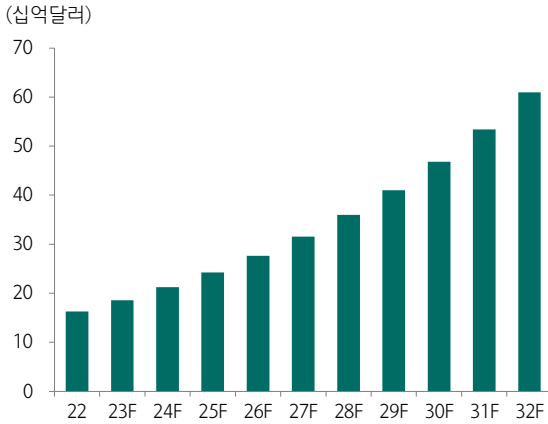
AI 신약 개발은 임상 데이터와 신약 개발에 적합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을 뜻한다. 신약 개발에는 제약사들의 막대한 R&D 비용이 소요된다. 식약처 허가 및 임상 비용 감축을 위해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도입하고 있다. 특히, AI를 적용하면 임상시험 단계에서도 최적의 신약후보 물질을 탐색할 수 있으며, 임상 설계 단계에서도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AI 신약 개발은 더욱 정밀한 표적 치료의 발전이 가능하며, 헬스케어 산업을 더 개인화시키고, 예측적이며, 예방적인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 현황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은 2023년 약 1.2조원에서 2028년 6.4조원으로 연평균 40.2% 성장이 전망된다. 글로벌 신약 R&D 비용에 비하면 AI 신약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글로벌 제약사들의 AI 신약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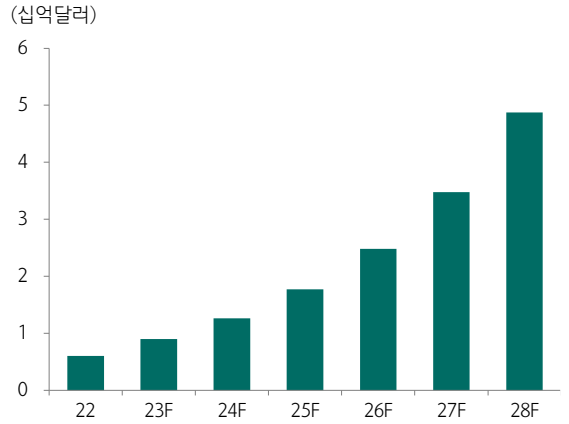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반 암 진단, 신약 개발기업들의 협업을 통해 AI 신약 개발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암 진단기업 페이지(Paige)와 AI 암진단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페이지는 10억개 이상의 다양한 암 유형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규모 기초 모델(Large Foundation Model)을 개발한 업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수십억 개의 매개변수로 구성된 AI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구글 클라우드에는 2023년 5월 신약 개발 및 정밀 의학 분야의 새로운 AI 기반 솔루션을 출시했다. 대표적으로 '타겟 및 리드 식별 제품군(Target and Lead Identification Suite)' 및 '멀티오믹스 제품군(Multiomics Suite)' 두가지 AI 솔루션은 단백질 구조의 예측 및 게놈 데이터 해석을 지원하며 신약 설계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이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컴퓨터 기반 신약 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엔비디아 바이오네모(NVIDIA BioNeMo)는 12개 이상의 생성형 AI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기반의 신약 개발 솔루션이다.

### 글로벌 신약개발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GlobalMarketInsight, 하나증권

###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Marketsandmarkets, 하나증권

### AI 신약 개발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유한양행	00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젠사이언스 AI 플랫폼 기반 항암신약 후보물질 작용기전 예측 및 표적 도출</li> </ul>
한미약품	128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젠사이언스 AI 플랫폼 기반 항암 주요 파이프라인 R&amp;D 협업</li> </ul>
보로노이	310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제약사와 자사 AI 신약 개발 플랫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파이프라인 확대</li> </ul>
종근당홀딩스	00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술 통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고도화 계획</li> </ul>
JW중외제약	001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반 신약 후보물질 'JW1601' 글로벌 임상 2b 완료</li> <li>독일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와 시를 이용한 신약 원료의약품 R&amp;D 업무협약 체결</li> </ul>
대웅제약	069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A2A파마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AI 기반 항암신약 공동 R&amp;D 진행</li> <li>독일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신시아'를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검증 지속</li> </ul>
보령	003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코크로스 AI 플랫폼 'RAPDOR AI' 활용한 카나브 신규 적응증 발굴 예정</li> </ul>
HK이노엔	195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이인비의 AI 신약개발 플랫폼을 통한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 후보물질 발굴 계획</li> <li>자체 AI 신약개발 플랫폼 'inno-SUN' 보유</li> </ul>
파로사이비오	3888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신약 백혈병 치료제 PHI-101 치료목적 사용승인 획득</li> </ul>
신테카바이오	226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신약개발 플랫폼 'DeepMatcher' 보유</li> </ul>

자료: 하나증권

## AI를 통한 의료 산업의 혁신

### 관전포인트

- 의료 AI는 최근 객체인식 및 이미지 정보 분류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 산업에 도입이 확대됨
- 의료AI 시장은 2030년 약 1,9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2021년부터 연평균 46% 고성장이 전망됨
- 최근 FDA 승인 허가를 받은 해외 업체들은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업체들의 식약처 허가 및 향후 해외로의 확장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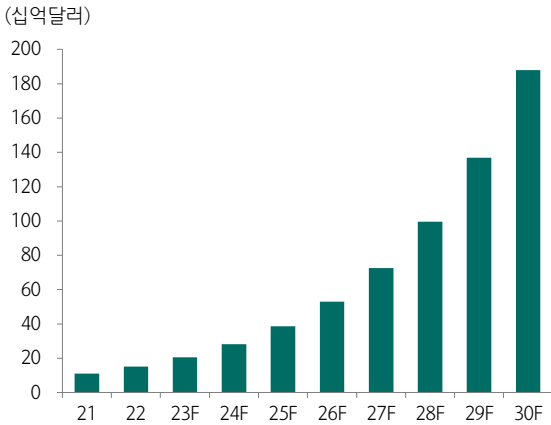
의료 AI는 진단, 치료, 결과 등을 포함해 환자를 지원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머신러닝,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딥러닝 등의 AI 지원 H/W 및 S/W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객체인식 및 이미지 정보 분류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영상과 같은 고차원 데이터와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1) 전문가의 실수 방지, 2) 의사결정 효율성 증대, 3) 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에 기여되고 있다.

### 현황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기능별로 살펴보면 1) 영상 데이터 및 병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독하는 데이터 판독 AI와 2) 복잡한 의료 데이터인 유전체 정보 및 임상시험 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이터 분석 AI로 나눌 수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의료AI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37%의 고성장을 이어가며 2030년에는 약 1,9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고성장이 예측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시장규모는 2020년 약 773억원 규모의 시장이 연평균 약 46%의 고성장을 이어가며 2026년에는 약 7,45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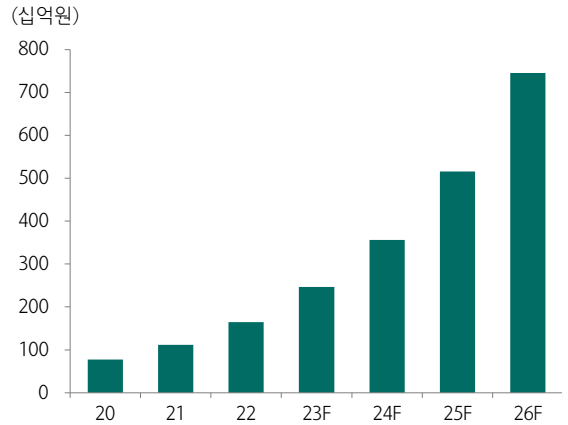
최근 FDA 승인 허가를 받은 해외 업체들의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Viz.AI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뇌 질환 식별 및 진단 서비스로 뇌졸중의 한 종류인 대혈관폐색(Large Vessel Occlusion, LVO)을 자동으로 스캔해서 진단을 보조하는 솔루션 업체로, 미국 및 유럽 1,400개 이상 병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출액은 2021년 1,200만 달러에서 2022년 8,500만 달러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HeartFlow의 FFRct는 관상동맥 CT 결과 분석 시 보이지 않는 혈액 흐름을 AI 기술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2018년부터 미국, 유럽, 일본에서 보험 수가를 적용 받아 2021년 매출액 약 3,600만 달러에서 2022년 약 7,500만 달러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 글로벌 의료 AI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Statista, 하나증권

### 국내 의료 AI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하나증권

### 의료 AI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루닛	328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지필름 외 GE헬스케어, 필립스, 가던트헬스 등 파트너십 확대에 따른 매출 발생 기대</li> <li>미국 ASCO에서 시기반 바이오마커 '루닛 스크프'의 영상 바이오마커 활용 가능성 입증</li> </ul>
제이엘케이	322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뇌졸중 AI 솔루션 'JBS-01K' 보험 수가 획득</li> <li>미국 파트너사 2곳을 통해 FDA 및 NTAP 승인 진행 중</li> </ul>
뷰노	338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영상 보조 진단 솔루션 'VUNO MED' 및 심정지 예측 솔루션 'Deep CARS' 보유</li> <li>VUNO MED-Lung CT 일본 M3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일본 시장 진출 계획</li> </ul>
딥노이드	315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룹 AI기반 자사 영상 진단 솔루션 'DEEP:CHEST', 'DEEP:NEURO', 'DEEP LUNG' 보유</li> <li>산업용 AI 솔루션 'DEEP:SECURITY' 고객사 및 적용처 확대 계획</li> </ul>
코어라인소프트	384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흉부 CT AI 솔루션 'AVIEW LCS Plus' 보유</li> <li>유럽 5개국에서 폐암 검진 프로젝트 진행 중</li> </ul>

자료: 하나증권

## 또 하나의 AI 거대 플랫폼

### 관전포인트

- AI 기반 앱(GPTs)의 마켓플레이스인 GPT스토어 출시에 따라 개발자들의 AI 앱 개발 수요가 본격화될 전망
- 300만개 이상의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앱이 글쓰기, 연구 및 분석, 교육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개발됨
- ChatGPT 서비스 출시 이후 2개월만에 1억명 이상의 MAU를 기록하며 GPT스토어 출시 이후 구독자 수 가속화 전망
- 국내 업체들의 GPT스토어 입점 및 향후 본격적인 수익화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는 중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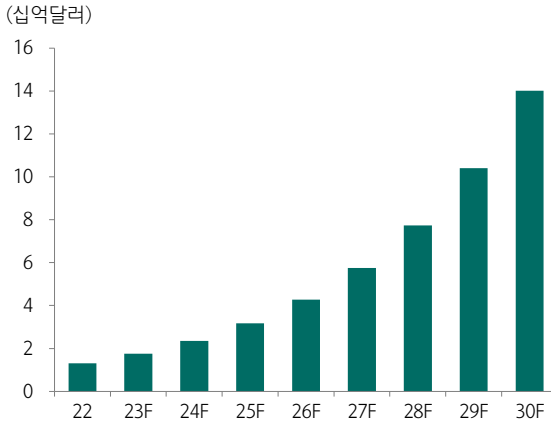
GPT스토어는 오픈AI에서 출시된 AI 기반 앱(GPTs)의 마켓플레이스로, 개발자들이 자체 제작한 AI 도우미를 게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GPT스토어에는 오픈AI 추천 상품, 인기 상품, 글쓰기, 연구 및 분석, 교육, 프로그램 등 목적에 맞게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다. 현재 ChatGPT 출시 이후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으로 약 300만개가 넘는 맞춤형 앱이 개발되었다.

### 현황

GPT 스토어 출시에 따라 ChatGPT 기반의 응용 AI 서비스의 사용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GPT-4 기반의 AI 에이전트는 ChatGPT 및 엔터프라이즈 구독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ChatGPT MAU 증가 추세는 더욱 가파른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ChatGPT 서비스 출시 이후 2개월만에 1억명 이상의 MAU를 기록했으며,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GPT 스타일의 다양한 챗봇을 만들 수 있어 생태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OpenAI의 달리(DALL-E) 3를 포함해 다양한 AI 앱들이 출시되고 있다. 달리 3는 이미지 생성 시로 사용자들의 대략적인 개요를 통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한글과컴퓨터는 GPT스토어 챗봇, OCR(이미지 속 텍스트 인식 기술), LLM이 적용된 오피스 소프트웨어 등 생성형 AI 기반 모듈화 기술과 SDK(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입점하며, 소프트웨어 교체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이스트소프트의 경우, 대표적인 AI 서비스 및 챗봇 앨런(Alan)과 AI 휴먼을 연동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GPT 스토어에 자사 AI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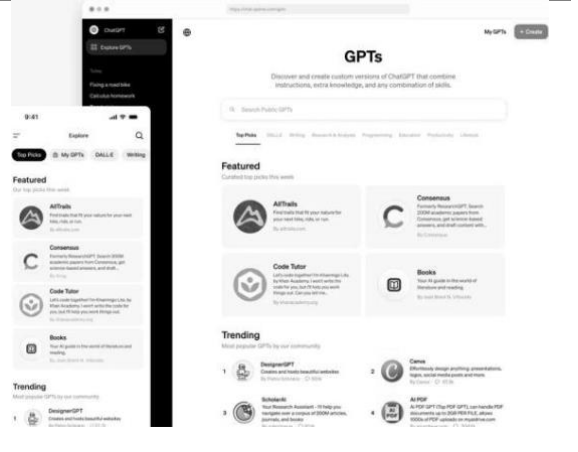
GPT 스토어의 본격적인 수익화 사업은 향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 개발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인 GPT 스토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유사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GPT스토어 개화 초기에는 개인들의 사용 빈도는 높으나, 아직 기업의 적극 사용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하나증권

## GPT스토어



자료: 언론보도, 하나증권

## GPT스토어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한글과컴퓨터	030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문서 작성 도구 '한컴 어시스턴트' GPT 스토어 등록</li> <li>AI 스타트업 포터투마루 40억원 투자 유치를 통한 LLM 기술 도입</li> </ul>
이스트소프트	0475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화형 AI 서비스 '앨런(Alan)' 출시 및 GPT스토어 등록</li> <li>마이크로소프트 협업을 팀즈 내 AI 휴먼 영상 제작 앱 '페르소' 도입</li> </ul>
플라리스오피스	04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성형 AI 기능이 탑재된 '플라리스 오피스 AI' 출시 및 GPT스토어 등록</li> </ul>
클라우드웍스	355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대언어모델(LLM) 데이터셋 구축 사업 영위 및 파인튜닝 프로젝트 레퍼런스 보유</li> <li>GPTs 확대에 따른 파인튜닝 수요 증대 수혜</li> </ul>
샌즈랩	411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TI 보안 서비스 'CTX'의 GPT스토어 등재</li> </ul>
비아이매트릭스	413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성형 AI 기반 로우코드 업무 시스템 구축 솔루션 'AUD플랫폼' 보유</li> </ul>

자료: 하나증권

## HBM의 성장은 이제 시작

### 관전포인트

- HBM이 DRAM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에 불과하며, 2024년 19%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성장 초입에 있다고 판단
- 2024년에는 엔비디아, AMD 등 주요 GPU 업체에서 신제품을 출시한 예정으로 HBM 선점 경쟁 본격화 전망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HBM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해도 북미 AI 서버 신규투자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전망으로 HBM 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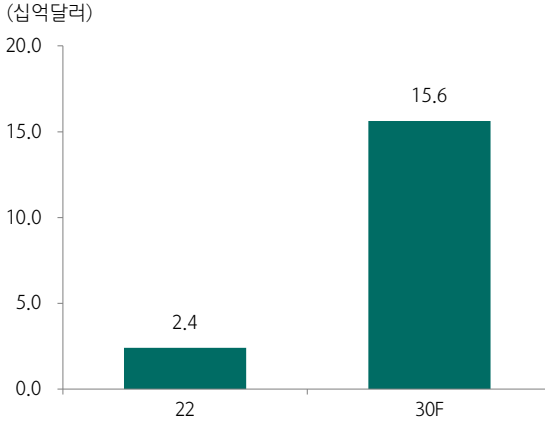
### 정의

HBM(High Bandwidth Memory)는 고성능 컴퓨터 그래픽 카드 및 다른 협업 컴퓨팅 장치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다. 고대역폭 및 저전력 특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로, 그래픽 처리와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ChatGPT라는 생성형 AI 챗봇의 급부상으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AI와 머신러닝은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속의 데이터 전송은 필수적이다. HBM은 높은 대역폭, 낮은 전력 소비, 스택 구조, 고밀도 설계 등을 통해 AI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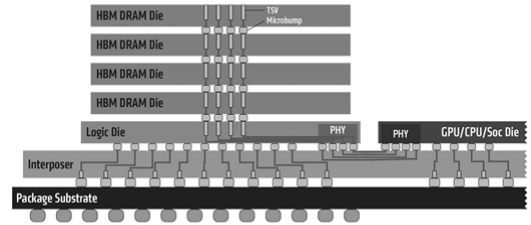
현재 HBM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AI 산업의 높은 데이터 생성량으로 인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HBM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4억달러이며, 2030년에는 156억달러(CAGR 26.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Micron, Intel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는 생성형 AI의 급부상으로 모두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GPU H100에 공급하며 HBM의 선두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 했다. 최근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그래픽 렌더링 등 데이터 집약적 산업에서 CPU나 GPU, 메모리 간 고속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이 중요해지고 있다. 게임 산업에서도 실시간 렌더링 및 이미지 처리를 위한 HBM 기능을 크게 활용하고 있으며, 복잡한 계산을 위한 슈퍼컴퓨터 및 데이터 센터, 가상 현실 및 증강 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 HBM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Value Market Research, 하나증권

## HBM 구조



자료: AMD, 하나증권

## HBM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삼성전자	005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BM3 진입을 앞두고 HBM 생산능력 2배 확대</li> <li>차세대 제품인 HBM3E 출시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음</li> </ul>
SK하이닉스	000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엔비디아에 HBM3 독점 공급으로 시장 우위를 차지함</li> <li>세계 최고 사양인 8단(24GB) HBM3E 제품을 발표하며 시장을 선점을 위한 행보 지속</li> </ul>
한미반도체	042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C bonder, HBM inspection 장비를 SK하이닉스 향 공급</li> <li>메모리 반도체 고객사로 확대 가능성 있어 수혜 강도 높을 전망</li> </ul>
이오테크닉스	039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전자 HBM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레이저 어닐링 장비 공급</li> <li>24년도부터 레이저그루빙 장비와 스텔스다이싱 장비 공급 전망</li> </ul>
테크윙	089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BM용 테스트 핸들러 '큐브 프로브', 웨이퍼 테스트 장비 '프로브스테이션' 고객사 공급 가능성</li> <li>큐브 프로브는 업계 최대 수준인 최대 256 Para를 테스트 가능한 장비로 경쟁 우위 확보</li> </ul>
에스티	122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전자 향 75억원 규모의 HBM용 장비인 웨이퍼 가압설비 및 EDS 칠러 수주</li> <li>패키징용 가압장비도 공급 추진 중</li> </ul>
제우스	079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년 HBM용 패키지 세정장비 아톰(ATOM)과 새턴(SATURN) 대규모 공급 전망</li> <li>HBM에서 TSV(실리콘관통전극) 세정 공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으로 제우스 수혜 예상</li> </ul>
아이엠티	45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HBM용 건식 세정장비 공동개발 성공</li> <li>24년 대규모 양산 장비 수주 기대</li> </ul>

자료: 하나증권



## 내 손안의 AI

### 관전포인트

- 온디바이스 AI란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엣지 디바이스에 인공지능 AI가 결부된 형태의 처리 방식을 뜻함
-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시장 규모는 2023년 185억 달러에서 2030년 1,738억 달러로 연평균 37.7% 고성장 전망
-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개인용 PC, 스마트 스피커, 웨어러블 기기, 기타 IoT 제품 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AI 탑재로 인한 엣지 디바이스의 교체 수요 증대로 인해 국내 반도체 및 하드웨어 업체 중심의 수혜가 예상됨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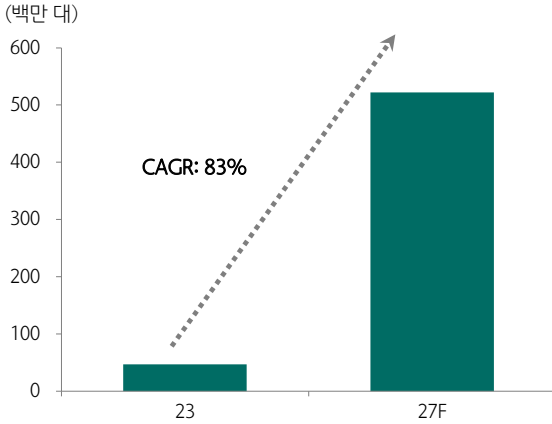
온디바이스 AI란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엣지 디바이스에 인공지능 AI가 결부된 형태의 처리 방식을 뜻한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서버가 정보를 처리했다면, 온디바이스 AI 환경에서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개인이 직접 경험하고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욱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현황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시장 규모는 2023년 185억 달러에서 2030년 1,738억 달러로 연평균 37.7% 성장될 전망이다.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개인용 PC, 스마트 스피커, 웨어러블 기기, 기타 IoT 제품 향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차세대 생성형 AI LLM인 제미니(Gemini)를 선보인 구글은 글로벌 최초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인 '픽셀 8 프로'를 첫 공개하였다. 삼성전자도 AI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S24 시리즈 스마트폰을 공개하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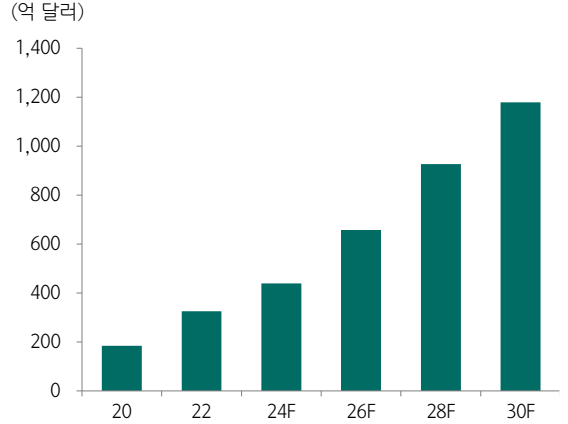
온디바이스 AI 구현을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자체 AI 칩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기에서 인공지능 AI의 빠르고 정확한 처리 및 에너지 효율을 갖춘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에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메모리 LLW(Low Latency Wide I/O) D램을 처음으로 탑재할 전망이다. 퀄컴은 스마트폰을 넘어 PC, 웨어러블, 기타 5G IoT 등의 제품군에 온디바이스 AI 탑재를 목표로, 먼저 스마트폰용 스냅드래곤8 3세대와 PC용 스냅드래곤X 엘리트 칩을 공개했다. 처음으로 생성형 AI에 최적화해 설계된 AP 제품으로, 삼성전자, 샤오미 등의 주요 스마트폰에 적용된다. 인텔은 AI 칩인 인텔 코어 울트라를 출시하며 PC 중심의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인텔 코어 울트라는 PC용 CPU 중 최초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한 칩으로, 2025년까지 1억대 이상의 온디바이스 AI PC에 탑재될 것으로 내다봤다.

### 글로벌 생성형AI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



자료: Counterpoint Research, 하나증권

###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추이 및 전망치



자료: 가트너, 하나증권

### 온디바이스 AI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삼성전자	005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출시</li> <li>차세대 DRAM LLW(Low Latency Wide IO) 저지연성아이디오 개발</li> </ul>
SK하이닉스	000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디바이스 AI용 고성능 모바일 모듈 LPCAMM2 개발</li> </ul>
삼성전기	009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향 초소형 및 고용량 MLCC 공급</li> </ul>
리노공업	058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 공급 확대</li> </ul>
심텍	222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 및 NPU 고사양화에 따른 FCCSP/SIP/MCP 기판 공급 확대</li> </ul>
가온칩스	399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디자인 솔루션 제공</li> </ul>
칩스앤미디어	094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PU 구동의 핵심인 영상 코덱 및 IP 공급 업체</li> </ul>
오픈엠티테크놀로지	394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반도체 IP 설계 수요 확대</li> </ul>
에이디테크놀로지	200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반도체소자 설계 및 제조(ASIC) 사업 영위</li> </ul>
제주반도체	080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G IoT용 퀄컴 및 미디어텍 SoC 저전력 반도체 인증 업체</li> </ul>

자료: 하나증권

## CXL 생태계의 등장

### 관전포인트

- AI 산업의 성장에 따라 메모리 자원 공유 및 확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워크로드의 효율화가 중요
- 메모리 공유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워크로드 효율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CXL 기술에 주목 필요
- 상용화된 CPU는 CXL 1.1에 해당되지만 올해 출시 예정인 인텔의 CPU 신제품을 기점으로 CXL 2.0 적용 예상
- 향후 글로벌 업체들의 CPU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CXL 2.0 적용이 증가할 것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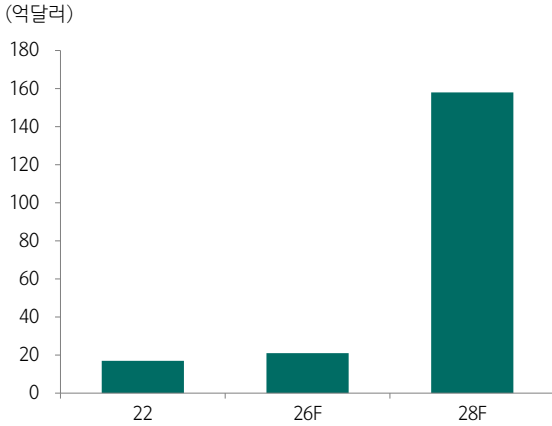
CXL은 Compute Express Link의 약자로, 기존의 메모리와 비교하여 컴퓨팅 리소스 사이의 높은 대역폭과 작은 지연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커넥션 기술이다. CXL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최근 회자되는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메모리 자원 공유와 확장의 중요성이 커지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워크로드를 소화하게 해주는 CXL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데이터센터에서는 여러 종류의 프로세서를 통해 연산을 처리하는 이기종 컴퓨팅을 통해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추진 중이며, CXL의 핵심이 '메모리 공유'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현황

CXL은 CPU와 여러 가속기 사이에 동일한 메모리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프로세서-메모리, 프로세서 간의 소통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현재 상용화된 CPU가 호환되는 기술은 CXL 1.1에 속하며 올해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텔의 5세대 제온 프로세서(에메랄드 래피즈)부터는 CXL 2.0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AMD 또한 신규 출시 예정 제품인 EPYC CPU Turin에 2.0 버전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텔이 글로벌 서버용 CPU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CXL 2.0의 확장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CXL은 기존에 적용되던 PCIe 체계에 기반하기에 호환성이 높은 편이며 DDR5부터 본격 적용될 것이기에 CXL 2.0이 상용화될 경우 D램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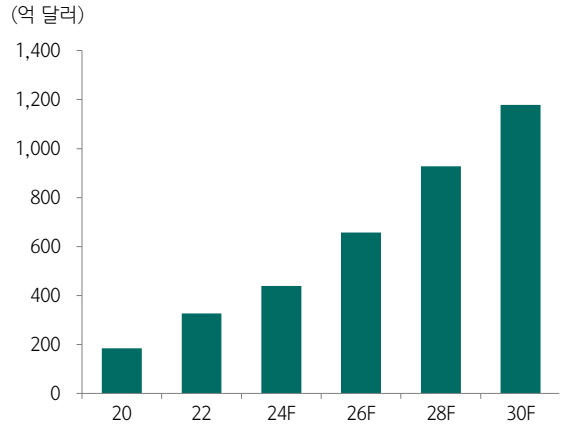
전체 비중으로 보면 올해까지는 Non-CXL 기반의 메모리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인텔 등 글로벌 업체들의 CPU 신제품 출시 이후 내년부터는 CXL 2.0 적용이 늘어날 것이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DRAM 대표 업체들은 CXL 2.0이 적용된 신제품 개발을 이미 2023년에 완료해놓은 상황으로 세대 전환이 가속화된다면 관련 실적이 본격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CXL 시장 규모



자료: 윌인텔리전스, 하나증권

### AI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 가트너, 하나증권

### CXL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오픈엠티테크놀로지	394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텔이 주도하는 CXL 컨소시엄에 등록된 국내 유일 IP 업체</li> <li>CXL 컨트롤러 칩 개발에 필요한 IP를 보유한 강점</li> </ul>
컬리타스반도체	432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XL 산업은 PCIe 기반하여 CPU와 GPU 등의 여러 장치 및 메모리를 연결</li> <li>8나노미터 핀펫(FinFET) 공정에 PCIe 4.0 파이 IP를 제공 중이며 PCIe 6.0 개발 추진 중</li> </ul>
네오셈	2535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업체</li> <li>2022년 세계 최초로 CXL D램 검사장비를 개발하며 시장 선점 효과 확보</li> </ul>
엑시콘	0928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CXL 1.1 테스터를 개발한 레퍼런스 보유</li> <li>차세대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자리잡을 CXL 2.0 테스터 개발을 연내 완료할 예정</li> </ul>

자료: 하나증권

## IT용 OLED 개화, 신규 OLED 적용처 확대로 성장성 담보

### 관전포인트

- 디스플레이 업계, 올해 점진적 경기 회복과 교체 주기 도래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역성장 탈피할 전망
- 스마트폰, TV 외에도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등 IT용과 전장용 제품 등 다양한 OLED 응용처 부각
- 애플의 아이패드, 맥북 등에 OLED 탑재할 전망으로 애플 OLED 관련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 유효
- OLED 신규 수요처 확대에 따른 OLED 대면적화 진행되면서 주요 기업들 8.6세대 OLED 투자 본격화

### 정의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는 형광성 유기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발광 소자의 일종으로 자체발광형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특징 때문에 OLED는 제품 두께를 더욱 얇게 만들 수 있으며 특수 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해 구부리거나 휘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기도 제작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로 TV, 스마트폰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차량용, 패드 등으로 활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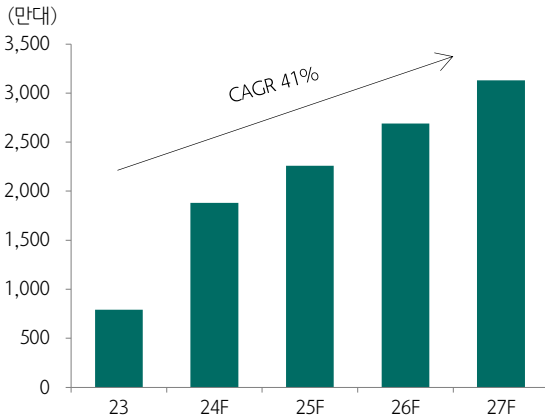
### 현황

디스플레이 업계는 코로나19 특수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IT, 가전 수요가 급감하면서 역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나 올해 교체 수요에 따른 수요 회복과 OLED 확산 영향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전망이다. 한국 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올해 OLED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8% 상승한 434억 달러로 예상한다.

지난해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패널 중 OLED 패널 출하량 비중은 51%로 처음으로 LCD를 넘어섰으며 스마트폰 외에도 TV,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등에 IT용 OLED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애플의 OLED 아이패드 출시와 유로 2024, 파리 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에 따른 TV 수요 회복 기대감도 시장 성장을 뒷받침해줄 전망이다. IT용 OLED 수요 증대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업계에서는 8.6세대 IT용 OLED 라인 투자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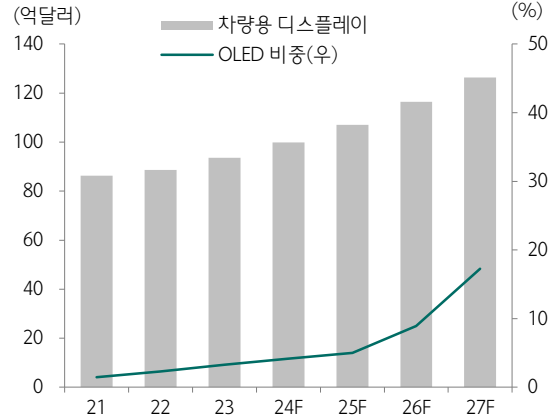
고부가가치 제품인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확대 또한 OLED의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레벨3가 상용화되면서 차내에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도입하고 있으며 K-디스플레이 업계는 이에 맞춰 차량용 디스플레이 출하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내에서 OLED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용 OLED 시장 규모는 23년 3억 달러에서 27년 22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IT용 OLED 출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유비리서치, 하나증권

### 차량용 디스플레이 내 OLED 비중 전망



자료: 옴디아, 하나증권

### OLED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LG디스플레이	034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스플레이 제조사. TV, 노트북, 모니터, 모바일 OLED / LCD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li> <li>6세대 장비에서 폴더블 노트북, 태블릿, PC용 OLED 생산</li> </ul>
피엔에이치테크	2398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G디스플레이에 OLED 소재 공급. 수익성 높은 고굴절 CPL과 발광층 소재 1종 공급</li> <li>LG디스플레이의 전장용 및 폴더블 노트북 OLED 양산 확대, 맥북 등 OLED 탑재 애플리케이션 다변화 수혜</li> </ul>
덕산네오룩스	213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LED 핵심 구성요소인 유기재료 생산.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소재 공급</li> <li>OLED 아이패드 양산 효과 본격화로 실적 성장 사이클이 3년 만에 재개될 것이라 전망</li> </ul>
LX세미콘	108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 고객사로는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li> <li>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설계. OLED용 DDI 수요 증가 기대감</li> </ul>
비에이치	090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PCB 제조, 공급하는 회사. 삼성디스플레이에 경성인쇄회로기판(RPCB) 제공</li> <li>주요 공급처 삼성전자와 애플로 디스플레이 물량 증가와 태블릿 OLED 확대 수혜 가능성</li> </ul>
코리아써킷	007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B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 영위. 삼성디스플레이의 애플 OLED 공급망에 진입</li> <li>기존 삼성디스플레이 기판 분야 최대 협력사인 비에이치와 함께 생산 맡을 전망</li> </ul>
원익머트리얼즈	104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OLED 등을 제조하는 공정용 소재로 사용되는 특수가스 생산. 삼성디스플레이향 OLED 관련주</li> <li>디스플레이 산업에서 OLED 제품군 확대에 따라 관련 특수가스 수요 증가할 전망</li> </ul>
필옵틱스	161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LED 레이저 장비와 2차전지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생산</li> <li>고객사 OLED 투자에 따른 실적 반등 기대감 존재</li> </ul>

자료: 하나증권

## 애플의 비전프로, XR시장 게임체인저 될까

### 관전포인트

- 올해 AI 성장과 함께 주요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로 XR 시장 다시 되살아날 움직임 보여
- 애플 비전프로 출시, 삼성-구글-퀄컴 XR 기기 출시 예정으로 XR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혼풍 이어질 전망
- XR 디바이스의 핵심은 디스플레이와 이미지센서, FPCB, 카메라모듈, 콘텐츠 업체에 대한 관심도 유효
- 차세대 산업용 XR 성장에 주목. XR 응용처 다변화는 XR 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

### 정의

XR(확장현실)은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을 통칭한 개념이다. XR은 VR/AR 기술의 개별 활용 또는 혼합 활용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확장된 현실을 창조한다. XR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실시간 3D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그래픽 처리 성능이 중요하다. 디스플레이 기술과 5G 등 대용량 데이터를 초저지연으로 전송하기 위한 기술도 전제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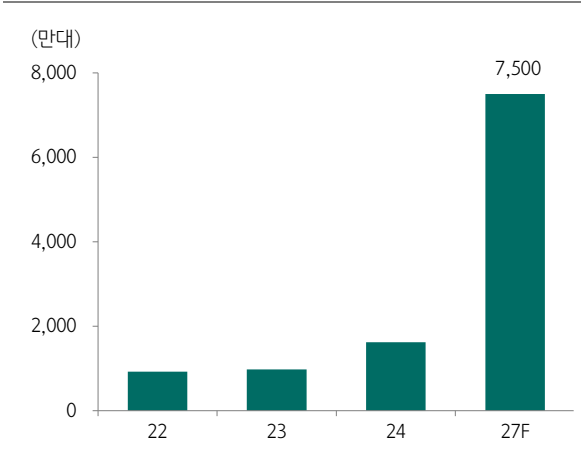
### 현황

그동안 부진을 겪던 XR 시장이 올해 주요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와 함께 되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ES 2024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공간컴퓨팅, 스마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된 제품을 선보이며 XR을 올해의 핵심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제2의 스마트폰'에 관심을 가지면서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VR, AR 기술이 활용된 웨어러블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XR 헤드셋 출하량은 1,100만대로 지난해(810만대) 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헤드셋 출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메타의 퀘스트가 XR 시장의 시작을 열었다면 이번 애플의 비전프로는 XR 시장 확대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 외에도 삼성-구글-퀄컴이 XR 기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XR 기기의 비싼 가격과 킬러 앱의 부재는 해당 업계가 당면한 문제점으로 부각받고 있다.

올해는 XR 콘텐츠의 확장과 응용처 다변화가 중요할 전망이다. 기존 XR 기기가 게임 콘텐츠 등 개인용, 오락용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그 범위가 산업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니는 지멘스와 합작해서 산업용 XR 개발에 나섰다며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3D를 활용하는 전문가용으로 물리적 공간 위에 가상의 물체가 나타나는 창작 공간을 확장할 수 있어 경계 없는 몰입형 작업공간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XR 기술이 제조, 건설,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응용처가 다변화되는 점은 XR 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 XR기기 출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CCS인사이드, 하나증권

## 애플-메타 XR 헤드셋 사양 비교

비전프로	명칭	퀘스트프로
공간 컴퓨팅	지향 키워드	메타버스
M2,R1 듀얼 칩	탑재 칩	퀄컴 스냅드래곤 XR2+
12 · 5개	카메라 · 센서	내외부 각 5개
눈과 손, 음성 조작	UI · UX	컨트롤러 필요
3499달러	가격	999달러
고급화	방향	대중화

자료: 하나증권

## XR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LG이노텍	011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 인식, 움직임 캡처에 필요한 3D 센싱모듈과 XR기기용 반도체 기판을 생산</li> <li>애플 비전프로 핵심 부품인 3D 센서 생산하고 있어 비전프로 관련 대형주로 꼽을 수 있음</li> </ul>
덕우전자	263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대폰 카메라 모듈 및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li> <li>비전프로 1대당 아이폰 3~4대 수준의 매출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여 비전프로 수혜 기대</li> </ul>
나무가	190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D 센싱 모듈 기술 보유. ToF, SL, 스테레오 방식 모두 공급 가능한 국내 유일 업체</li> <li>ToF 카메라 모듈과 신규 게임기용 ToF 카메라 모듈 공동 개발 중</li> </ul>
뉴프렉스	085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타의 퀘스트3 핵심 부품인 카메라 모듈용 FPCB를 독점 공급</li> <li>XR 기기향 매출 확대, 고마진 제품 비중 증가 등에 올해 호실적 기대감 존재</li> </ul>
세코닉스	053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학부품 전문회사로 XR 핵심 부품인 투사모듈과 접안렌즈 기술 보유</li> <li>현재는 미국 AR 안경업체인 Vuzix에 투사모듈을 납품하고 있음</li> </ul>
하이비전시스템	126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제조 기업으로 3D 센싱 모듈 검사장비 공급</li> <li>XR 확장성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의 비전프로 관련주로 부각</li> </ul>
엔피	29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수의 광고 제작사를 통해 XR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체</li> <li>메타버스와 연계하는 XR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XR 콘텐츠 기업으로 관련</li> </ul>

자료: 하나증권



## 폴더블+AI폰 만남으로 기대되는 스마트폰 시장의 지각변동

### 관전포인트

- 지난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에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매출은 전년대비 증가세 기록
- 프리미엄 부문은 전체 스마트폰에서 판매량 기준으로 25%를 차지하나 매출액 기준으로는 60%에 달함
- 폴더블+AI폰 성장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다각화. 중국 등에서 폴더블 판매량 유의미한 점유율 확보
- 폴더블 시장에서의 애플의 시장 진출 여부와 삼성전자의 독보적 지위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이 관전 포인트

### 정의

폴더블은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형태를 지칭하며 주로 스마트폰으로 많이 활용된다. 폴더블폰은 액정을 접을 수 있어 파손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 제품보다 화면이 크고 접어서 사용할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하다. 폴더블 생산을 위해서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한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 강화 유리 대신할 투명 P필름, P필름의 경도를 높일 수 있는 하드코팅 소재, 터치 집적회로(IC) 등 기술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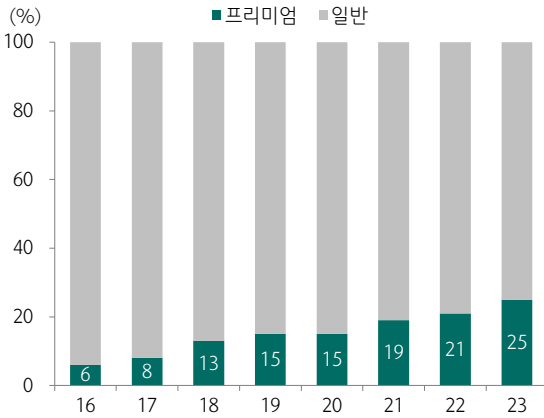
### 현황

지난해 전체 스마트폰 매출은 역성장한 반면 프리미엄 스마트폰(도매가 600달러 이상)은 전년 대비 6% 성장했다. 프리미엄 부문은 전체 스마트폰에서 판매량 기준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기준으로는 60%에 달한다. 스마트폰 시장 침체에도 플래그십 모델 교체 시기 도래와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프리미엄 부문은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폴더블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 AI 기능을 탑재할 전망이다.

글로벌 폴더블폰 판매량은 지난해 29% 성장한 1,670만대를 기록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대로 미미하지만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오포, 아너 등 기업들이 폴더블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지난해 3분기 중국의 폴더블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중국, 인도, 중동 등 지역에서 프리미엄 제품 판매량의 성장 속도가 높은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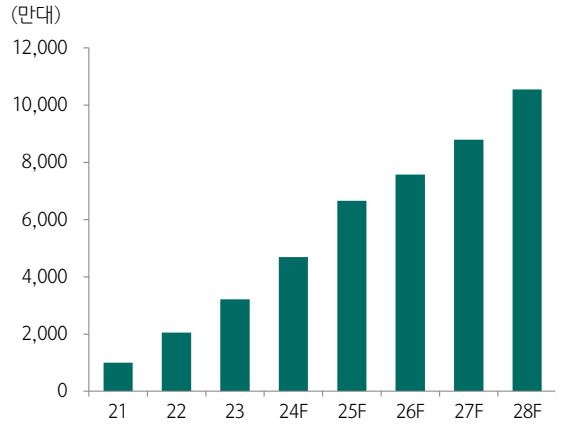
폴더블 업계의 관전 포인트는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출 여부와 삼성전자의 대중화 위한 중저가 모델 출시 가능성이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이 압도적인 1위(점유율 71%)를 기록하고 있으며 삼성전자(17%), 화웨이(5%)가 그 뒤를 잇는다.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출은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현재 폴더블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전체 프리미엄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중저가 모델로 가격 장벽을 낮추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스마트폰 프리미엄 부문 점유율 추이



주: 프리미엄 부문은 도매가 600달러 이상 기준  
 자료: 카운터포인트리서치, 하나증권

### 폴더블 OLED 출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옴디아, 하나증권

### 폴더블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인터플렉스	051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제조업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고객사</li> <li>삼성전자의 폴더블, XR 기기 매출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 존재</li> </ul>
삼성전기	009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그룹 계열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MLCC, 카메라 모듈, 전력 반도체 등 정장 부품 생산</li> <li>스마트폰 기저 효과와 MLCC 업황 바닥 통과, 온디바이스 시 관련 수혜 기대감</li> </ul>
비에이치	090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제조업체. 삼성향 폴더블 스마트폰 RF-PCB 공급</li> <li>애플의 OLED 아이패드향 수혜 기대감 존재</li> </ul>
세경하이테크	148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대표 스마트폰용 기능성 필름 전문업체. 북미 태블릿 OCA 시장 진출</li> <li>OLED 태블릿 출시가 빠르면 상반기 내 기대되어 실적 올해부터 반영될 전망</li> </ul>
필옵틱스	161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LED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광 공정장비 전문업체</li> <li>폴더블 제품용 중소형 OLED와 IT기기용 중대형 OLED 관련 장비 라인업 강화</li> </ul>
유티아이	179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부품 제조업체, 카메라 윈도우, 터치모듈, 센서글라스 등 제조</li> <li>주력 제품은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래스로 폴더블 관련주로 꼽힘</li> </ul>
파인애플	441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모바일, 자동차부품 등의 분야에서 개발 및 제조사업 영위</li> <li>폴더블폰 힌지(Hinge)를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체. LG디스플레이와 외부 힌지특허 공동 출원</li> </ul>

자료: 하나증권

## Peak-Out 우려는 과도

### 관전포인트

- 2023년 하반기 국내 주요 그룹의 초동 판매 부진에 따른 산업 Peak-Out 우려 부각
- 앨범 판매 부진은 스트리밍, 굿즈, 공연 등으로 상쇄될 것으로 전망
- 기존 대형 그룹 외에도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룹 지속적으로 증가세
- 중국의 한한령 기조 변화와 대형 신인 그룹 등장 등의 변수 요소 주목 필요

### 정의

엔터테인먼트는 오락, 연예(노래, 춤, 연기)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종합 기획사, 음반 기획, 제작 및 매니지먼트 업체 등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최근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해외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팬덤을 갖춰나가는 중이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하이브, SM, YG, JYP 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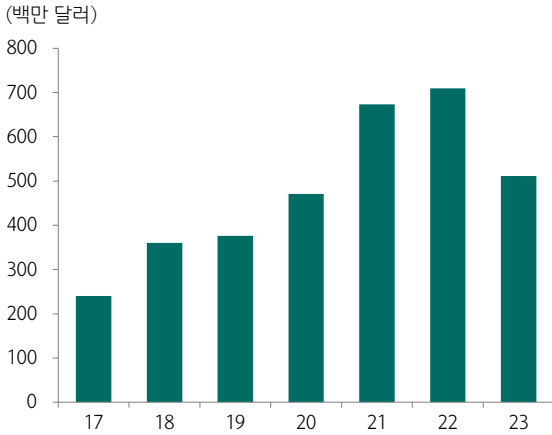
### 현황

유튜브와 BTS 효과로 이어져온 K-POP 열풍이 해외 수출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에서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더이상 내수에 국한된 문화가 아닌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높아지는 K-POP의 인기로 인해 단순히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해외 현지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 현지 팬덤이 구축되면 음반 외에도 라이브 공연, MD 상품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2023년 하반기 중국 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중국 팬덤의 앨범 공구 감소가 발생했고 주요 그룹의 활동 불확실성이 악재로 부각되면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주었다. 해당 이슈의 영향은 하반기 매출 감소를 통해 선제적으로 반영되었다. K-POP 콘텐츠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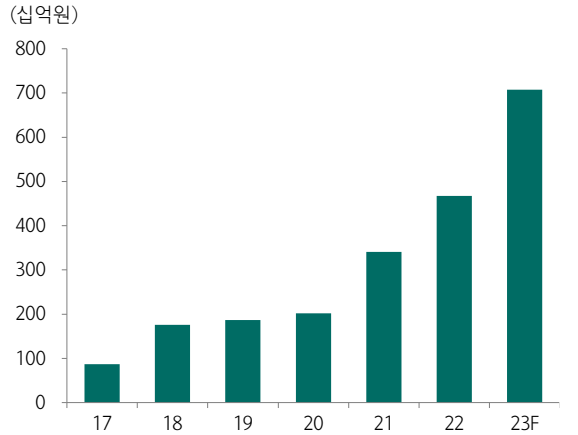
올해는 기존의 대형 그룹의 복귀만큼 신인 그룹의 흥행 여부가 산업의 중요한 포인트로 각광 받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중소형사를 포함하면 매달 1~2팀의 신인 그룹이 데뷔할 예정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의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 2팀, 일본 3팀, 중국 1팀 등 글로벌 데뷔 또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K-POP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구조적인 해외 진출로 풀이된다. 과거에 비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익원은 다양해져 있는데 앨범 판매 수익에 집중하기 보다는 K-POP의 파급력 증대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 앨범 수출 추이



자료: TRASS, 하나증권

### 주요 기획사 합산 영업이익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하이브	352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TS 전원 군복무에 따른 공백기 동안 신규 4개팀 데뷔, 주요 그룹으로 부상한 뉴진스의 단독 투어 기대</li> <li>2023년 BTS 앨범 판매량으로 인한 높은 기저에도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li> </ul>
JYP Ent.	035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앨범 판매량 부진에 따른 우려 존재하나 공연, MD 등 다양한 수익원 확보 완료</li> <li>올해 해외 현지 3개 팀을 포함해 4개팀을 데뷔시킬 예정으로 신규 팀 성공 여부 주목 필요</li> </ul>
에스엠	04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향 공구 감소에 따른 여파 1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li> <li>Riize의 성공적인 데뷔와 신규 그룹 데뷔를 감안하면 우려는 다소 과도한 상황</li> </ul>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228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랙핑크의 재계약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완료</li> <li>블랙핑크의 부재를 베이비몬스터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 존재</li> </ul>
큐브엔터	182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사의 주요 그룹인 (여자)아이들의 2번 이상의 컴백 기대</li> <li>단일 그룹 의존도가 높지만 신규 남자 그룹 데뷔에 따른 의존도 일부 해소 전망</li> </ul>

자료: 하나증권

## 올해에도 해외 매출 확대 여부가 관건

### 관전포인트

- 인플레이션 부담과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 여력 하락에 따라 업종 주가 수익률 둔화
- 2023년 업종 내 주가 수익률 차이는 주로 해외 매출 확대 여부
- 원부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다소 제한적
- K-Pop을 필두로한 문화 경쟁력 확대를 통한 해외 매출 확대 여부 주목 필요

### 정의

음료와 식료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국내에서는 라면, 가공식품, 제과, 음료, 주류, 빙과 등이 산업 내에서 중요하다. 음식료는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기 방어주로 각광 받는다. Q 변동이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변화 등에 민감한 편이며, P의 변동과 해외 매출 확대에 따른 Q 증가가 주요한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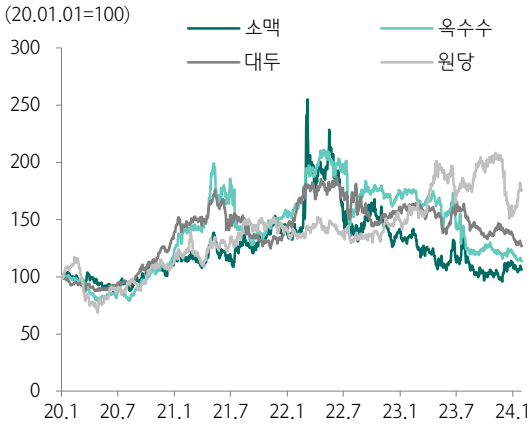
### 현황

음식료 업종의 경우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 지속된 원부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지속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긍정적인 업황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판가 전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하락함에 따라 업황이 다소 둔화되었다. 그럼에도 해외 매출 확대에 성공한 기업들은 업종을 아웃퍼폼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역시 높아진 문화 경쟁력을 기반으로 내수 시장을 넘어서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기업들의 성과가 기대된다. 내수가 부진한만큼 해외 매출 확대에 따른 기대감에 주목해야한다. 2023년 수출 확대를 통해 기대감을 고조시킨 품목은 라면과 핫도그가 대표적이다. 이는 삼양식품과 우양의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삼양식품은 2023년 YTD 수익률 약 70%를 기록했으며, 우양의 경우 2023년 YTD 수익률 약 90%를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해외 매출 확대를 통해 호성과를 거둔 기업들은 투자 매력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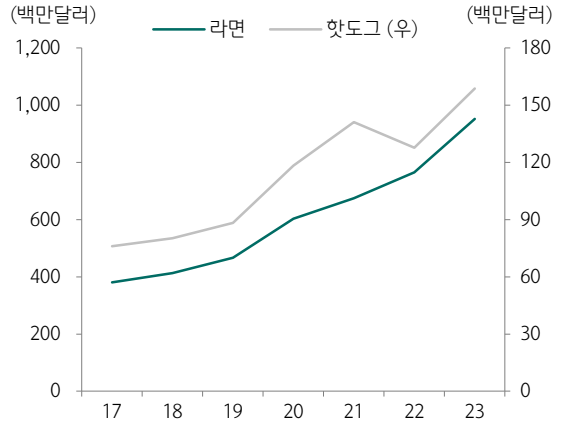
원부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가 이뤄진 현재 국내 수요의 변동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업종 환경 속에 돌파구는 결국 2024년에도 해외 매출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이뤄낸 K-POP 열풍은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고 있다. 아시아권을 넘어 서구권의 팬덤이 형성돼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료품 역시 서구권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인 해외 매출 확대 전략을 통해 라면과 핫도그를 넘어 차기 K-Food 선도할 잠재력을 가진 품목들을 선별해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 주요 곡종별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라면 및 핫도그 수출 추이



자료: TRASS, 하나증권

### 음식료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CJ제일제당	097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두를 필두로 미주 지역에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타 지역 부진으로 아쉬운 실적 기록</li> <li>소비여력 회복과 원부재료 투입 비용의 하향 안정화에 따른 점진적인 개선 기대</li> </ul>
하이트진로	000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제품 '켈리'와 기존 강자 '테라' 모두 견조한 성과를 바탕으로 출고량 증가 전망</li> <li>2023년의 낮은 기저를 감안하면 실적 개선 기대감 고조</li> </ul>
삼양식품	003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의 판매 호조와 함께 미국 수출 증가가 전사를 견인</li> <li>급증하는 수요에 맞춘 공장 증설에 따라 장기적인 고성장이 기대되는 음식료주</li> </ul>
우양	1038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한국 문화 관심도 증대와 함께 미국 대형마트 진출 등으로 핫도그 수출액이 크게 신장</li> <li>만두와 라면 인기 증가에 필접하는 핫도그 국내 1위 제조업체로 2024년도 기대감 지속 전망</li> </ul>
큐브엔터	182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사의 주요 그룹인 (여자)아이들의 2번 이상의 컴백 기대</li> <li>단일 그룹 의존도가 높지만 신규 남자 그룹 데뷔에 따른 의존도 일부 해소 전망</li> </ul>

자료: 하나증권

## 한국 문화 인기는 소비재까지 확장될 전망

### 관전포인트

-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인기로 인한 한국 문화 관심도 증가
- 웹툰,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 또한 과거 대비 높아진 상황
- 화장품, 의료기기, 의류 등 다양한 소비재들이 문화 경쟁력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 기록
- 한국 문화의 영향이 높은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기업을 주목할 필요 존재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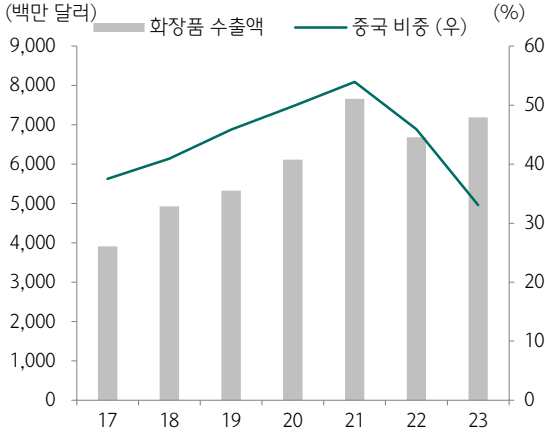
소비재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뜻하는 말로 한 번 사용해서 없어지는 소모재와 반복 사용이 가능한 내구소비재 등이 존재한다. 즉,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재화를 뜻하는 말로 품목이 매우 다양하다. 소비재들은 그 성향에 따라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자유소비재(임의소비재)의 경우 경기에 민감해 소비 여력과 수요의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며, 필수소비재의 경우 경기에 관계 없이 소비되기 때문에 소비 여력과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다.

### 현황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드라마의 좋은 성과는 직접적인 콘텐츠 경쟁력을 넘어 간접적으로 국내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인기를 누린 K-POP과 OTT 드라마를 주로 소비하는 연령층과 지역이 소비재의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표적인 수출 소비재인 화장품의 경우 소비하는 연령층이 어려워지고, 아시아권을 넘어서 서구권 등에 수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럭셔리 K-Beauty와 높은 중국 비중이 고평가를 받았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대중적인 브랜드사 및 OEM/ODM 사들과 비중국 매출 비중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화장품의 중국 비중은 2021년 53.9%에서 2023년 33.1%로 감소한 반면 화장품 OEM/ODM사들의 매출은 동기간 26.9% 증가하였다. 한국 문화 경쟁력 확대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가 발생한만큼 2024년에는 변화에 맞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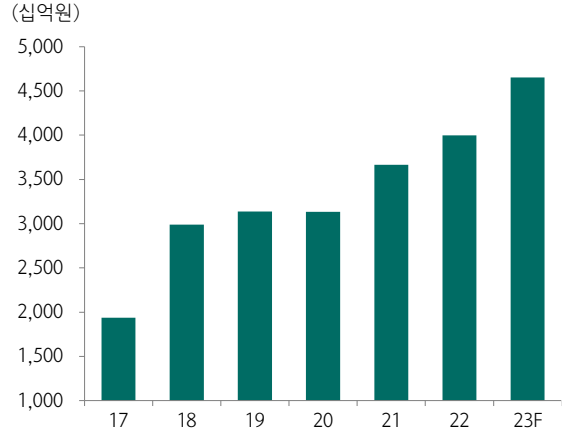
K-콘텐츠의 파급력은 언급된 음식료, 화장품 외의 다양한 소비재들에게 유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자국의 문화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거나 더 젊은 세대를 타겟하는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을 세우는게 향후 매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류, 의료기기 등 다양한 소비재들의 2024년 해외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화장품 수출액 및 중국 비중 추이



자료: TRASS, 하나증권

### 주요 화장품 OEM/ODM사 매출 합산 추이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 소비재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아모레퍼시픽	090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에 다소 집중되었던 매출 비중이 미국, 일본, 아시아권으로 분산</li> <li>리브랜딩, 비중국 비중 확대, 코스알엑스 인수 등에 따라 이익 증가 전망</li> </ul>
코스맥스	192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과 미국법인 모두에서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li> <li>OEM/ODM 강자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2024년에도 뛰어난 성과 기대</li> </ul>
씨앤씨인터내셔널	352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이엔드부터 인디, 셀럽 브랜드까지 모두 아우르는 고객사 확보</li> <li>본격적인 북미 침투에 따라 고성장 지속 전망</li> </ul>
브이티	018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동사의 고부가 제품인 리들샷이 일본, 한국 등에서 좋은 성과 기록</li> <li>오프라인 채널 확대와 추가 해외 진출 등에 따른 성장 모멘텀 여전히 유효</li> </ul>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337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대형 스포츠 전문 그룹과 젝시믹스 독점 유통 계약에 따른 중국 진출</li> <li>2024년 약 50개 오프라인 매장과 함께 빠른 속도로 중국의 애슬래저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li> </ul>

자료: 하나증권



## 대한민국에 아기울음 소리를 기대하며

### 관전포인트

-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하며 OECD 국가중 1위인 상황
- 여야 막론하고 초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4월 총선까지 관련된 테마 변동성이 극대화될 전망
- 출산 관련주들중 실제 정부정책에 수혜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야 할 시점

### 정의

대한민국은 현재 국민 남녀 한쌍당 0.7명의 아이를 낳고 있는 상황으로 초 저출산 국가에 해당하며 OECD 국가중 1위를 기록 하고 있다. 지금의 출생율이 계속 유지된다 하면 1세대에 대한민국 인구 1/3로 줄어들어 국가 경쟁력 하락과 나아가 나라 존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중대사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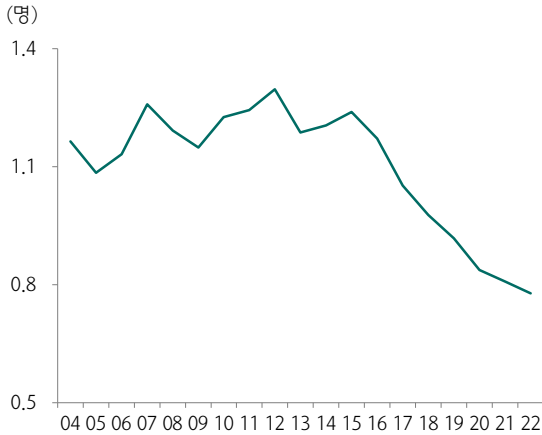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가족의 기능 및 형태의 변화,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비 증가,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결혼 연기과 출산 기피 문화의 확산 등의 이유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장차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부양 부담이 상승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 현황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거, 자산,돌봄,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이 주된 공약이다. 시장에 영향을 준 내용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가구당 1 억원을 대출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빠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육아지원에 관한 내용이 골자이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만큼 저출산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더욱 주목 받을 전망이다.

## 한국 출산율 추이



자료: KOSIS, 하나증권

## 저출산 지원 정책

편성	예산안 (억원)	전년대비(%)
돌봄과 교육	13,245	23.7
일·육아 병행 지원	21,531	18.8
주거안정	89,732	30.3
양육비 부담 경감	28,887	78.1
의료지원	504	1,700.0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하나증권

## 육아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네오팜	092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브랜드로 아토팜, 제로이드 등 영유아 특화 제품 위주의 라인업 구축</li> <li>H&amp;B와 수출 호조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제2의 도약기 기대</li> </ul>
아가방컴퍼니	013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용품 및 아기용품 전문기업</li> <li>육아용 의류시장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MOU를 통해 진출 기반 확보</li> </ul>
제로투세븐	159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의류, 스킨케어, Poe 등의 제조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li> <li>주력 브랜드인 공중비책을 필두로 급변하는 유통채널에 능동적 대응 기반 구축 중</li> </ul>

자료: 하나증권

## 바야흐로 펫코노미 시대

### 관전포인트

-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며 펫산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황
-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약 8조원 수준
-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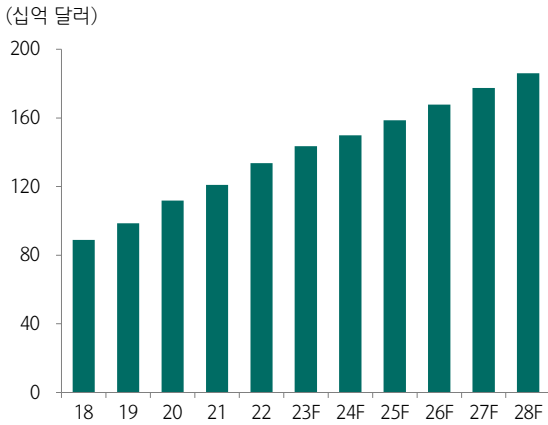
### 정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약 1500만명에 이른다. 1인 가구 증가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등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를 이끌고 있는데, 요즘 시대의 덩크족들은 자식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고, '펫부머(Pet+ Babyboomer)'는 자녀 독립 후 반려동물에게 애정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숫자가 많아진 만큼 펫산업 시장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바야흐로 '펫코노미(Pet+Economy)' 시대다. 펫코노미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생산 및 산업, 소비활동을 의미한다. 국내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원(62억 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15조원까지 키우고,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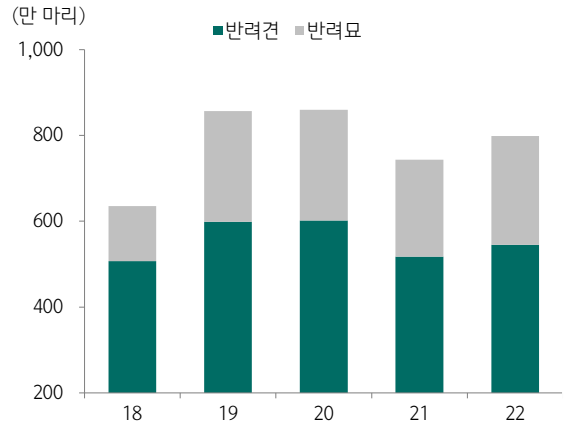
반려동물 산업은 펫푸드, 펫가전, 홈케어, 장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이뤄져 있다. 특히 펫푸드 산업은 제조 기술력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반려동물용 사료와 간식을 개발중이다. 이를 통해 기존식품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반려동물 전용 제품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전업계도 펫가전 제품을 출시하여 공격적으로 유통 및 마케팅 하며 반려동물 산업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다양한 기업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과 기능을 갖춘 제품을 출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반려동물 산업은 꾸준한 수요증가와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인한 시장확대로 다양한 산업군과 연결되어 고성장을 이루고 있다.

## 글로벌 펫푸드 시장 규모 및 추이



자료: Statista, 하나증권

## 국내 반려동물 추정치



자료: 농식품부, 하나증권

## 반려동물 산업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웅진F&B	0497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펫푸드 전문 브랜드 '뉴트리플랜'으로 펫푸드 사업 진출</li> <li>반려동물 용품 브랜드 아르르 인수, 펫 전문몰 추추닷컴 오픈에 따른 펫사업 고도화</li> </ul>
오에스피	368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려동물 프리미엄 펫푸드 전문 제조업체</li> <li>국내 펫 사료 ODM 시장 점유율 52% 수준, 프리미엄 사료 니즈 증가에 따른 성장 기대</li> </ul>
우진비앤지	018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업체</li> <li>동물 백신 제품을 통해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방향 수립</li> </ul>

자료: 하나증권

## 저출산시대 나이들어가는 대한민국, 실버테크로 전환

### 관전포인트

- 현재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노인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고령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
- 노인에 대한 정의가 과거와 달리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의 의미도 넓어져 이에 따른 실버 산업이 등장
-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 구조 관련주, 로봇 관련주 등이 해당 현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의

실버테크란 노인을 위한 돌봄,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령층에 적합하도록 적용된 기술을 일컫는다. 일본의 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버테크 기술을 통해 노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위급 상황을 판단해 신고하는 인공지능 기술등이 나타나고 있다. 실버테크란 용어는 현재에만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대 초반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실버테크는 4차 산업의 발전과 코로나19 국면과 맞물려 다시 한번 조명 받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겐 더욱더 중요한 산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과 주식시장에서는 향후 노령인구 관련 실버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노인들이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하면서 이들의 구매력을 타깃으로 하는 실버산업이 유망한 업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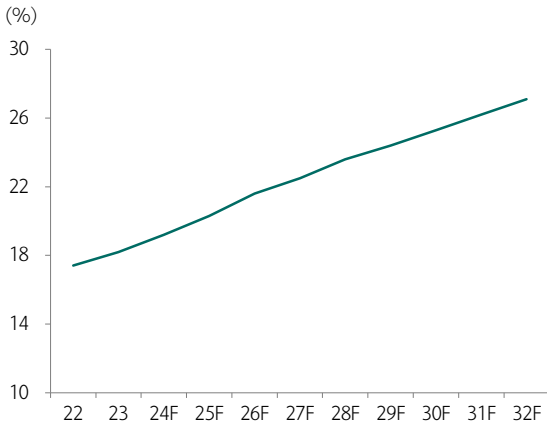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2년 글로벌 소비시장을 주도할 10대 트렌드의 하나로 실버테크 산업을 지목했고 향후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ICT 기술에 대한 노령층의 관심이 증가했고 노령층의 소셜미디어 사용량도 증가하며, 온라인 대화나 건강 검진과 진료 및 상담 등에 대한 노령층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황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과 더불어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봉착해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인구 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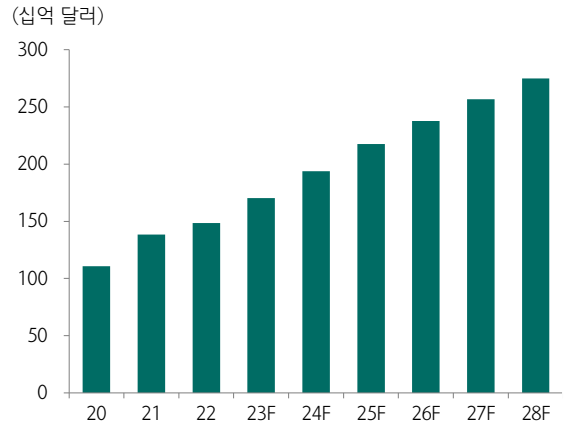
인구 고령화는 노인 증가, 실버산업 확대, 헬스케어 산업 성장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또 시장이 성장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이 이러한 고령화 관련주들과 함께 여러 관심이 필요하다.

###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 전망치



자료: 통계청, 하나증권

### 글로벌 실버테크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치



자료: Statista, 하나증권

### 고령화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덴티움	145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플란트 제품을 핵심 제품으로 치과용 의료기기, 생체재료 등 생산 업체</li> <li>국내 매출 비중 20%, 해외 수출 80%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 유효</li> </ul>
차바이오텍	085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줄기세포 연구, 제대혈 보관, 세포치료제 개발, 노화방지 서비스 사업 영위</li> <li>계열사를 통해 의약품, 글로벌 CDMO, 해외 의료 네트워크 확장 진행중</li> </ul>
인탑스	049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대기업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생산 업체</li> <li>핸드셋에서 고성능하는 로봇산업으로의 산업 매출 변화 도모 중</li> </ul>
유비케어	032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EMR 1위 업체</li> <li>의료정보 플랫폼 사업, 개인정보관리 플랫폼 사업 영위</li> </ul>

자료: 하나증권

## 정밀부품 국산화, 전방 산업 확대에 주목

### 관전포인트

- 협동로봇의 핵심인 인간과 함께 작업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제어가 필수적
- 감속기, 제어기, 서보모터 등 주요 정밀부품의 국산화 중인 국내 기업에 주목
- 협동로봇의 사용 어플리케이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
- 의료, F&B, 서비스, IT 등 산업으로 협동로봇을 개발 및 납품하는 기업은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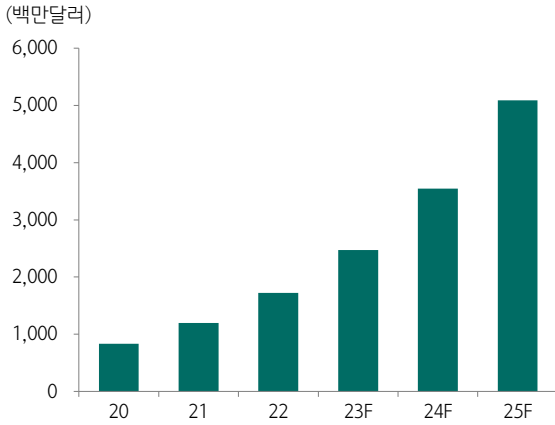
### 정의

협동로봇은 인간과 함께 작업하고 상호 작용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주로 인간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공간을 공유하고 작업을 조정하며, 이를 통해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협동로봇은 제조, 의료, 물류, 농업, 건설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로봇은 센서, 인공 지능 및 컴퓨터 비전 기술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협동로봇은 미래의 산업 및 일상 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간과 로봇 간의 효과적인 협력은 다양한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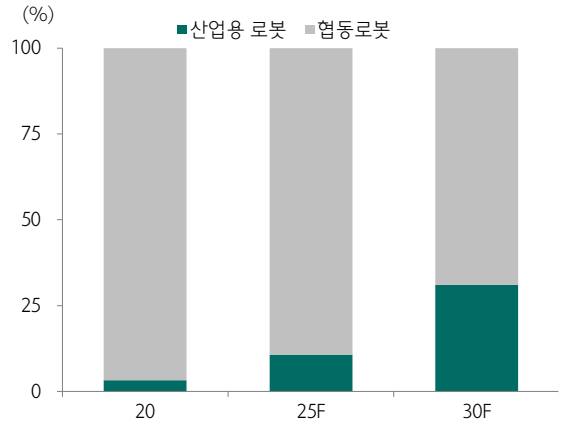
전 세계 협동로봇 시장은 2020년 8억 3,624만달러에서 2025년 50억 8,849만 달러로 CAGR 4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은 2020년 5,900만달러에서 2025년 3억 6,658만달러로 CAGR 4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로봇 비중은 2020년 3.3%, 2025년 10.7%, 2030년 31.0%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공정 효율화 및 편리성, 활용처 확대 등으로 관련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협동로봇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달리 한 공간에서 작업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율적으로 사람을 인식하고 작동하거나 움직임을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용 로봇에 비해 작은 크기, 숙련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어, 작업 공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MIT 연구진은 산업용 로봇만 생산 공정에 투입했을 때 보다 인간과 협동로봇이 함께 작업할 경우 최대 85%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협동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제조 기업 뿐만 아니라 F&B,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은 화학, 첨단 IT 산업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 협동로봇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주:  
자료: 하나증권

### 협동로봇 비중



주:  
자료: 하나증권

### 협동로봇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두산로보틱스	454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년 기준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중국 제외) 4위</li> <li>모듈화 생산과 생산능력 증대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이를 통한 공급 확대 전망</li> </ul>
레인보우로보틱스	277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전자 15% 지분 투자, 콜 행사 시 최대주주 등극 가능해 삼성과 시너지 기대</li> <li>핵심 부품 내재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협동로봇 제품 출시에 따른 실적 성장 전망</li> </ul>
유일로보틱스	388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교, 협동, 다관절, 제조 자동화,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 보유</li> <li>청라 3공장 증설로 연 2,000억 이상 생산능력 확보</li> </ul>
에스피지	058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성감속기 및 정밀감속기 국산화로 양산 가능한 제조 시설 보유</li> <li>SH, SR 감속기는 협동, 웨어러블, 산업용 로봇 향 매출 본격화 전망</li> </ul>
뉴로메카	348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촌에프앤비와 F&amp;B용 협동로봇 개발, 90억원 공급계약 수주</li> <li>제조용 용접 로봇, F&amp;B 등 다양한 산업으로 협동로봇 공급 확대 기대</li> </ul>
에스비비테크	389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밀감속기 국산화 기업으로, 치형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내재화 성공</li> <li>협동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에 따른 수혜 기대</li> </ul>

주:  
자료: 하나증권



## 센서와 카메라, 자율주행 기술, 온디바이스 AI

### 관전포인트

- 무인운반로봇에서도 AI와 머신러닝의 도입 가속화 전망
- AI와 결합을 통해 무인운반로봇은 더욱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오류 및 오작동 예측, 유지보수, 물류 효율성 상승 등의 효과가 나타날 전망
- 전체 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성과 개별 무인운반로봇의 성능 극대화를 위해 Edge 단에서의 자율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
- 실시간 물류와 제조를 위한 엣지 AI(온디바이스 AI) 기술의 개발과 도입, 무인운반로봇의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됨

### 정의

무인운반로봇은 창고, 공장, 물류센터 등에서 자동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로봇을 말한다. 자율주행로봇(AMR), 자동화유도차량(AGV)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고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의 개입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무인운반로봇 중 AGV는 고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반면, AMR은 자율적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경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나, 각각 명확한 용도가 있어 이 둘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물류 및 창고관리 산업에서 빠른 상품 처리, 정확한 재고 관리, 인건비 절감 등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조 생산 라인에서는 자재 이송 및 제품 조립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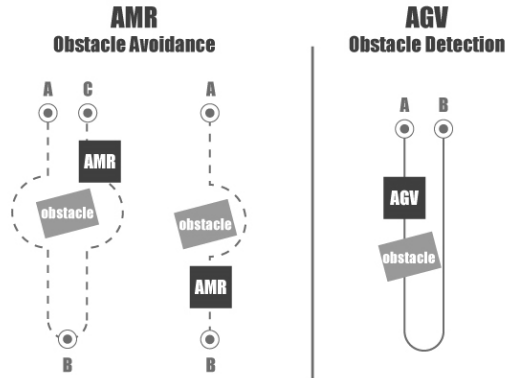
무인운반로봇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물류로봇 시장은 2022년 71억달러에서 2029년에는 210억달러로 CAGR 16.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물류 자동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에 기인한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 증가가 무인운반로봇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마존은 다양한 무인운반로봇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아마존은 로봇을 통해 효율적으로 상품을 분류하고 운반하여 주문처리 속도를 높였다. 현재 Picking, Sortation, Robo-Stow, Kiva, Scout 등 물류의 대부분 단계에서 로봇을 활용 중이다. 정밀 센서와 카메라, 자율주행 기술, 온디바이스 AI 등은 무인운반로봇의 성능을 가파르게 향상시키는 기술로 꼽힌다.

## 아마존 키바 로봇



주:  
자료: 하나증권

## AMR과 AGV 비교



주:  
자료: 하나증권

## 무인운반로봇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브이엔텍	25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 AMR/AGV 제조 기업 시스콘 인수</li> <li>현대차그룹, LG전자, 삼성SDS 향 납품 레퍼런스 보유, AMR 공급 논의 중</li> </ul>
티로보틱스	25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K온 향 600억원 규모의 AMR 공급계약 체결</li> <li>고객사 신규 공장 설립 및 공장 자동화에 따른 AMR 공급 확대 전망</li> </ul>
퓨런티어	25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주행차량 필수 부품인 전장용 카메라 조립 및 검사 장비, 부품 제조 전문 기업</li> <li>Active Align/Intrinsic Calibration/EOL 등 제품 라인업 보유</li> </ul>
러셀	25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회사 러셀로보틱스는 대기업 공정물류 자동화 프로젝트 등 약 300대 이상 AGV 공급 레퍼런스 보유</li> <li>국내 고객사 추가 발주 외에도 북미, 인도 등 해외 프로젝트에서 가시적인 성과 전망</li> </ul>
에스엠코어	25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년 SK그룹 편입, SK하이닉스 향 반도체 공정 및 물류 이송장비 자동화시스템 공급을 시작</li> <li>Tray Stocker 납품을 시작으로 AGV 등 반도체 후공정 향 공급 레퍼런스 확보</li> </ul>
유진로봇	25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봇 청소기에서 쌓은 자율주행 기술로 AMR 시장 진출</li> <li>AMR '고카트'의 미국 물류 기업과 동사의 전략적 투자자인 밀레 향 공급 기대</li> </ul>

주:  
자료: 하나증권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통합

### 관전포인트

- 스마트팩토리과 기존 자동화공장을 구분 짓는 핵심 요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통합된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의 구축 여부
- CPS는 하드웨어(로봇)와 소프트웨어(컴퓨터)가 상호 영향을 끼치며,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소통 및 프로세싱이 가능해야 함
- 하드웨어에서는 가격 통제를 통한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고, 소프트웨어에서는 AI,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등의 차세대 기술 탑재가 증가할 전망
- 스마트팩토리의 하위 산업이 세분화되는 가운데, 스마트팩토리라는 큰 틀 안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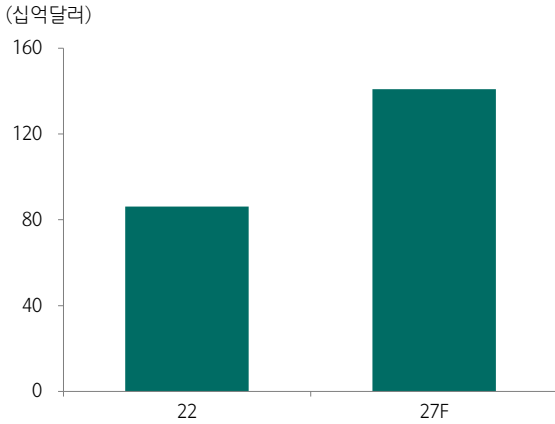
스마트팩토리는 제조산업에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개념으로, 공장 내의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스마트팩토리는 단순한 공장자동화를 넘어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생산 전체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에는 로봇 기술 및 자동화,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분석 및 AI,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등을 통해 완전 자동화 및 디지털화가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 현황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MarketsandMarkets'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팩토리 시장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9.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각국의 기업과 정부는 스마트팩토리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영국 등 5개국의 총 투자금액 합계는 2025년에 1,01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중 미국은 전체 투자금액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투자는 플랫폼, 예측 솔루션, 원격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스마트팩토리 및 고성능 컴퓨팅 도입을 위해 5,000만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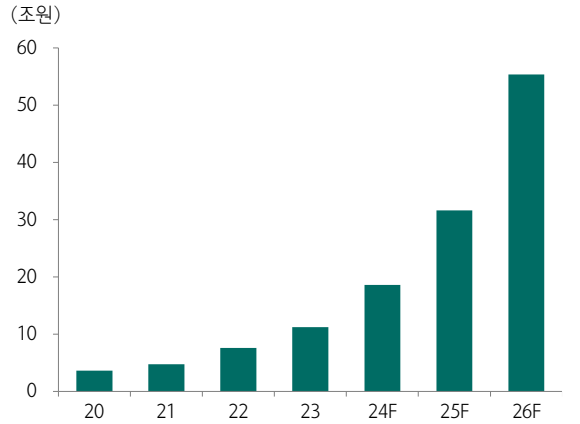
최근 코로나19, 전쟁, 국제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 간 무역 축소, 물가 상승, 구인난 등으로 이어져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탈세계화 현상은 결국 각국이 자국 의존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하며, 이는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전 세계 스마트팩토리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주:  
자료: 하나증권

###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주:  
자료: 하나증권

###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삼성에스디에스	018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플랫폼 기반 제조 지능화 서비스 Nexplant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제공</li> <li>클라우드 생산관리(MES) 솔루션으로 대용량 제조 데이터 생산-저장-분석 서비스 제공</li> </ul>
포스코DX	02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금 공정에 필요한 고위험 작업에 로봇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완료</li> <li>향후 고위험 수작업 공정 로봇으로 대체 전망</li> </ul>
엔로	058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1위 MES 기업으로 삼성에스디에스 인수 이후 삼성그룹과 시너지 기대</li> <li>삼성에스디에스, 오나인솔루션즈와 글로벌 통합 공급망관리(SCM) SaaS 플랫폼 개발</li> </ul>
엠아이큐브솔루션	373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데이터 관리 솔루션 SmartEES으로 설비 효율 향상</li> <li>디지털트윈과 AI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 기대</li> </ul>
티라유텍	322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라우드 기반 통합 제조 운영 시스템인 MOM이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성공사례로 선정</li> <li>하드웨어 티라봇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하여 스마트팩토리 경쟁력 강화</li> </ul>
에스에프에이	056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스플레이 자동화 장비에서 2차전지, 유통 등으로 확대 전환</li> <li>수주잔고 1.4조원을 바탕으로 향후 산업군 다변화 전망</li> </ul>

주:  
자료: 하나증권

## 비용 절감 및 부품 조달의 중요성 대두

### 관전포인트

- 미국 및 유럽 중심의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 시장의 확장은 국내 풍력 업체들에게 수혜로 작용
-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금리가 과거 대비 하락 시 비용 부담 낮아져 수익성 상승 가능
- IRA 법안 발효 이후 풍력발전기용 그리드 설비의 공급 부족 현상도 주목해야하는 포인트
- 국내 핵심 풍력 기자재인 대형 터빈, 블레이드, 발전기 등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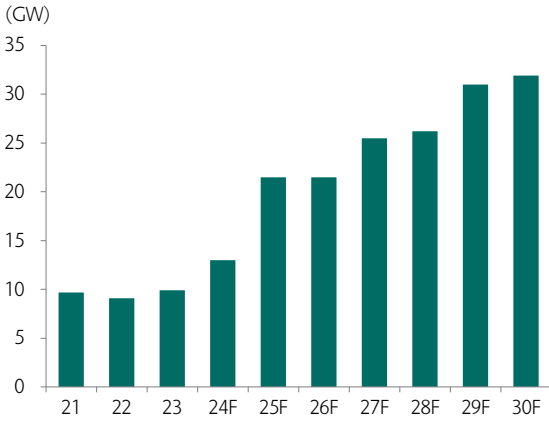
풍력 발전은 에너지 쇼티지 및 기후 문제가 대두되며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발전 시스템이다. 터빈을 이용하여 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변경하는 프로세스이며 전체적인 구조는 발전기, 타워, 증속기, 블레이드 등의 세부 부품으로 나뉜다. 설치 위치에 따라 육상, 해상 풍력으로 구분되는데 국내의 경우 토지 관련 여건을 고려할 때 해상 풍력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해상풍력은 현존하는 신재생 에너지 중 단위 면적 당 생산 가능한 전력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으로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향후 프로젝트별 규모의 지속 성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해상풍력 발전단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국내외 풍력 에너지원 수요 증가로 산업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

### 현황

풍력 산업은 프로젝트 가동 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기에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율 비용 부담으로 프로젝트 수익률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과거 대비 하향 추세로 전환하면서 풍력 사업 프로젝트 수익성이 과거 대비 증가할 수 있는 국면에 놓여있다. 또한 풍력 부품 중 터빈의 주 원재료인 철강, 구리 등의 광물 가격이 2023년 대비 최근 일부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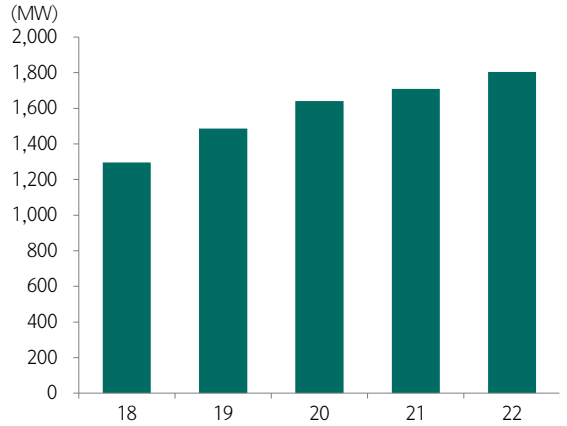
풍력발전기용 그리드(전력망)의 중요성도 고려해봐야한다. IRA 법안 발효 이후, 북미를 비롯해 글로벌 풍력 신규 설치 프로젝트 수는 우상향하였으나 그리드 설비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그리드 관련 대기 수요가 존재하며 2023년 초 한국 정부에서도 향후 5년동안 스마트그리드 관련 3.7조원 투자 예산안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또한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에 따라 수혜 가능한 사업 부문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지속 상승 중이며 단위 면적 대비 전력 생산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풍력이기에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 글로벌 해상풍력발전 성장 전망



자료: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 하나증권

### 국내 풍력 설치 용량 추이



자료: 하나증권

### 풍력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씨에스윈드	112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사업으로 풍력발전기 제조 및 판매와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유지보수 영위</li> <li>지난 7월 덴마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기업인 블라트 인수를 공시하는 등 사업 확장 진행 중</li> </ul>
씨에스베어링	297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씨에스윈드의 자회사로 2018년 편입되었으며 풍력발전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 생산 전문 업체</li> <li>지난 11월 베스타스 향 6MW 규모의 블레이드 베어링 승인으로 24억원의 초도물량 수주 확보</li> </ul>
두산에너지빌리티	034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인 지멘스가메사와 MOU 체결을 통한 사업 시너지 기대</li> <li>국내 상업용 해상풍력 실적 보유 업체로 EPC 및 O&amp;M 서비스 사업 영위 중</li> </ul>
LS에코에너지	229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전력, 통신케이블 중심의 사업에서 최근 해저케이블, 히트류 사업으로 확대</li> <li>정제된 네오디뮴을 국내외 영구자석 업체 향 공급할 예정인데 네오디뮴은 풍력발전기의 필수원자재</li> </ul>
SK오션플랜트	100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만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일본, 호주 등 해외 향 적극적 확장</li> <li>532MW 규모 해상풍력 단지 구축하는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하부구조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li> </ul>

자료: 하나증권

## 성장 중인 산업, 미국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 추이에 집중

### 관전포인트

-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에 기반한 확장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비중 지속 상승 추세
-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 정도가 주목해야할 포인트
- 최근 글로벌 RE100 추세에 따라 국내외 개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장기구매하는 형태가 증가 추세
- RE100 활성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 상승하게 된다면 산업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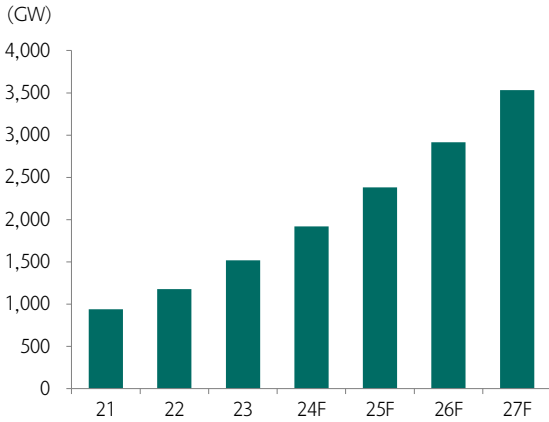
### 정의

태양광 발전은 태양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로 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특정 금속이 빛을 받게 되면 빛의 입자인 광자가 금속 내 전자와 충돌하며 전자를 방출시키며 태양전지가 작동된다. 태양광 발전은 전기생산과정 중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태양광 패널의 평균적인 수명은 20~30년 정도로 장기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이다. 과거에는 육상 태양광 설비만 설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해상 지역으로도 활발히 확대되는 추세이며 영토에 적합한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방식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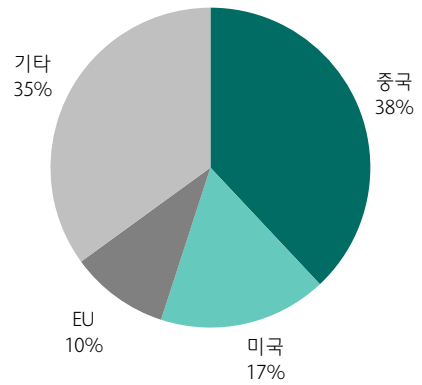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2025년 초 전체 발전량의 30%이상을 차지하며 석탄의 비중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3년 전력 생산으로 배출된 탄소는 약 1.34MT로 2022년 1.34MT 대비 1% 증가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2026년에는 1.3MT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추세에 태양광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태양광 패널의 가격하락에 기반한 확장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태양광 산업은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 정도가 주요 포인트이다. 과거 2022년 하반기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은 당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신장산 이슈로 인해 수급이 타이트했다. 그러나 해당 이슈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미국향 수출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미국 모듈 가격은 유럽 모듈 가격 대비 높은 편이다. 한편 최근 글로벌 RE100 추세에 따라 해외를 비롯한 국내에서도 개별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장기구매하는 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였으나, 이제는 기업이 별도의 구매계약을 맺는 방식이 찾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신규설치규모 중 기업구매 관련 비중이 3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RE100 활성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 증가한다면 태양광 산업의 성장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태양광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SolarPower Europe, 하나증권

### 글로벌 태양광 발전량 국가별 점유율



자료: IEA, 하나증권

### 태양광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HD현대에너지솔루션	32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태양광 발전 전문 기업으로 가정용, 산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모두 영위</li> <li>미국 등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고효율, 고풍력의 N-타입 모듈 제품 양산을 통한 매출 증대 목표</li> </ul>
한화솔루션	009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대표 태양광 밸류체인 생산 라인을 보유한 업체</li> <li>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 협약을 통해 태양광 발전 모듈 공급, 발전소 설계 및 시공 향 확장 중</li> </ul>
OCI	010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텍사스에서 자회사 '미션솔라에너지'를 통한 태양광 모듈 사업 진행 중</li> <li>일반부지 태양광 사업, 지붕형 태양광 사업, ESS사업 등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 진행</li> </ul>
신성이앤지	01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출력 태양광 모듈, 발전소 시공으로 태양광 발전 관련 원스톱 솔루션 제공</li> <li>탑권 기반 N타입 태양광모듈을 공개하며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고풍력 태양광 모듈 선보임</li> </ul>

자료: 하나증권



## 지속적으로 개화하는 수소 시장

### 관전포인트

- 유럽연합은 2050년 에너지 비중의 20% 이상을 그린수소로 달성하려는 목표 보유 등 수소 관련 집중도 높아짐
- EU 회원국들의 국경 인접해있다는 장점을 통해 수소 파이프라인 개발 추진 중
- CES 2024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도 수소 밸류체인 확장 의지를 표명
- 수소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 필요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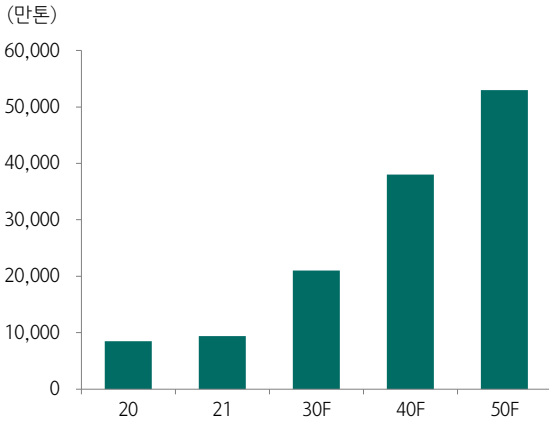
수소에너지는 무한정인 물 또는 유기물질을 변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다. 석유와 같이 채굴 가능한 1차적인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 캐리어(Energy Carrier)의 방식으로 1차 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해야하는 특징을 가진다. 수소에너지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으며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장기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다. 주된 방식은 기체 수소를 압축하여 탱크에 저장하거나 암모니아 액상 형태 저장, 냉각 액화 저장 등이 있다. 또한 과거 석유, 석탄, 가스 등의 탄소에너지는 높은 수입 비중을 보였던 것에 비해 수소는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생산 발전이 가능하다.

### 현황

EU(유럽연합)은 2050년 에너지 비중의 23% 이상을 그린수소로 달성할 계획을 공개하는 등 그린수소를 중시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그린수소 사용량에 대한 할당도 진행 중인데 2030년까지 그린수소 할당량을 산업용은 기존 수소 사용량의 42%, 2035년까지 60%로 정한 바 있다. 또한 회원국들의 국경이 인접해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유럽 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수소 파이프라인 개발도 추진 중이다. 지난 23년 2월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은 2030년까지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럽 다른 지역으로 수소 운송을 위한 주요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하며 유럽만의 독립적인 에너지 공급을 추진 중이다. 미국 에너지부(DOE)에서는 지난 6월 미국 최초의 '국가 청정 수소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며 청정 수소 산업의 성장에 속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2030년 미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005년 수준보다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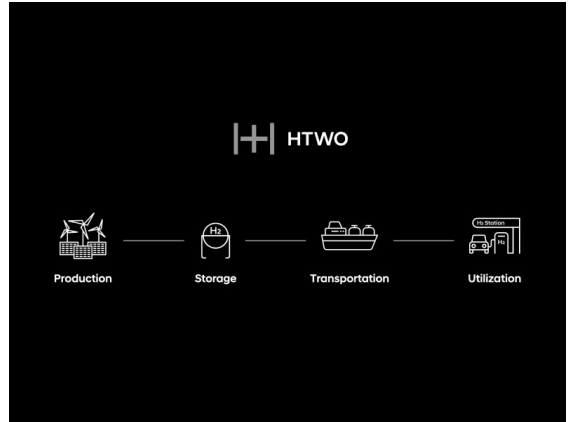
국내 수소 산업도 본격 개화 중이다. 현 정부에서 국내 수소 생산 능력을 2025년 1~2MW에서 2028년 10MW, 2028년 이후 100MW 이상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CES 2024에서 현대차그룹은 기존 연료전지 브랜드 'HTWO'를 현대차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하고 HTWO Grid 솔루션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수소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확장 및 투자를 추진 중이다.

## 글로벌 수소 수요 전망



자료: IEA, 하나증권

## 현대차 수소 솔루션 HTWO Grid



자료: 현대자동차, 하나증권

## 수소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현대차	005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차 상용화 성공, 이후 2018년 넥소 출시로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차지</li> <li>2035년 수소 소비량 연 3백만톤 이상 증대 및 수소 밸류 체인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 수소 솔루션 목표</li> </ul>
POSCO홀딩스	005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50년까지 연간 수소 생산 700만톤, 매출 30조원 달성 목표로 수소 밸류체인 구축 진행 중</li> <li>오만 그린수소 사업권(수소 승용차 4,400만대 분량)을 확보하는 등 해외 사업 확장</li> </ul>
효성중공업	298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충전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포함한 생산, 조립, 건립까지 종합 솔루션 사업 제공</li> <li>세계 최대 액화 수소 기업 린데(독일) 그룹과 액화 수소 공장 및 충전소 구축</li> </ul>
두산퓨얼셀	336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 LNG, LPG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다양한 연료전지 개발 및 공급 사업 영위</li> <li>2023년 일반수소 입찰 시장에서 약 100MW 물량 확보하며 연간 60% 이상의 점유율 확보</li> </ul>
에스퓨얼셀	288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 연료전지 제작 및 판매 전문 업체로 건물용 연료전지가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li> <li>자회사 에스모빌리티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 중</li> </ul>

자료: 하나증권

## 빠르게 성장 중인 ‘K-소비’

### 관전포인트

- 인도 인구, 2023년 기준 중국을 넘어서며 인구 대국으로 도약. 평균 연령대 27살로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
- 젊은 층이 한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콘텐츠를 넘어서 다양한 소비재로 ‘K-소비’ 한류 확산하고 있음
- 코로나 이후 피부 미용에 관심이 높아진 인도, 국내 화장품 업종에서 특히 마스크팩에 대한 관심 높아져
- 인도의 대표적인 K-푸드 라면. 국내 브랜드의 낮은 시장 점유율에도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향 라면 수출

### 정의

소비 시장은 주로 한 국가의 내수시장을 말하며, 소비가 얼마나 활발한 지에 따라 국가의 경기 척도가 판가름된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민간소비)로 집계된다. 인도는 14억 2,575만 명(2023년 기준)으로 기존 인구 1위였던 중국의 14억 2,570만명을 제치며 1위 국가가 됐다. 인도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7%(중국 14%, 미국 18%), 평균 연령은 27세이며 평균 연령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주요 소비 및 생산 중인 2030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인도의 소비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각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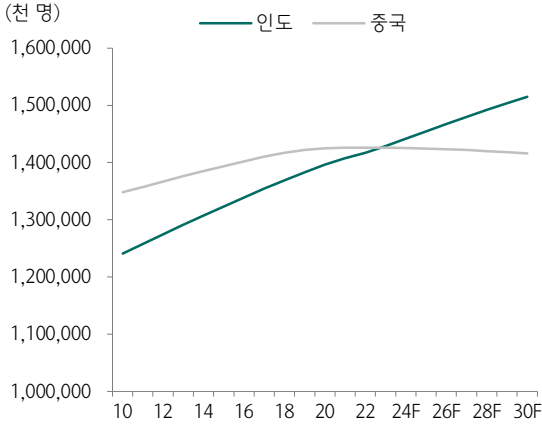
### 현황

젊은 층이 한류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코로나 기간 인도에 한류 문화가 빠르게 확산됐다. 2020년 한국 드라마 시청 횟수가 전년 대비 370% 상승하면서 가파른 성장을 보여준 동시에 K-POP도 큰 인기를 끌었다. 과거 K-POP 불모지였던 인도가 2022년에는 전세계에서 네 번째로 한국 아이돌 영상을 많이 시청했다. 한류 문화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만큼 소비 콘텐츠도 다양하게 진화했다. 드라마, K-POP으로 한류를 접한 인도의 주 소비층의 관심이 K-뷰티, 푸드 등의 영역까지 확산하면서 화장품, 라면과 같은 재화의 소비로 이어졌다.

인도에서 가장 관심 갖는 한국 화장품 중 대표적인 제품은 마스크팩이다.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마스크팩이 편리한 스킨케어라는 인식에 마스크팩 사용이 증가했다. 현지에서 인기 있는 국내 브랜드로는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LG생활건강의 페이스샵, 토니모리 등이 있다. 인도로 수출되는 화장품 금액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연 23% 성장했으며 인도 화장품 시장이 글로벌 4위인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수출액 증가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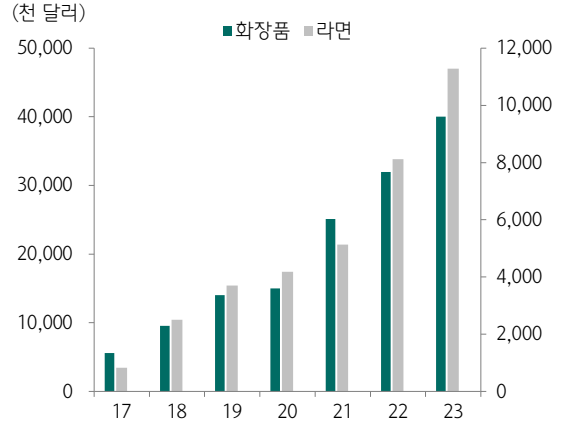
인도 K-푸드 열풍의 일등 공신은 라면이다. 매운맛에 익숙한 인도인들에게 한국 라면은 색다른 매운맛으로 관심을 얻었다. 소수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국내 브랜드 시장 점유율은 부진하지만 한국이 인도의 라면 수입 2위를 차지하면서 코로나 전후로 204% 상승했다. 인도에서 인기 많은 브랜드로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있다. 코로나 전에는 한국 라면을 쉽게 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쉽사리 구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기대된다.

### 인도, 중국 인구수 추이 및 전망



자료: UN population Division, 하나증권

### 인도향 화장품, 라면 수출액 추이



자료: trass, 하나증권

### 소비 시장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아모레퍼시픽	090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 이니스프리를 시작으로 라닛, 에뛰드, 설화수 인도 시장에 론칭</li> <li>페이스 마스크와 같은 단순한 제품에 대해 화학 물질 없는 고품질 제품으로 광고하며 인도 시장 공략</li> </ul>
LG생활건강	05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빌리프, 더페이스샵이 인도에 진출했고, 마스크팩 및 기초품목 인기가 많아</li> <li>더페이스샵 마스크팩은 인도 브랜드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앞세워</li> </ul>
삼양식품	003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불닭볶음면' 라면을 보유한 브랜드</li> <li>채식 인구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지 시장 고려해 비건 라면 라인업 강화 중</li> </ul>
농심	004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힌두교도 비율이 높아 소고기 베이스가 아닌 '신라면 치킨'으로 현지화 공략</li> <li>국면없는 라면을 선호하는 인도 시장을 고려해 볶음면 제품 라면 출시</li> </ul>

자료: 하나증권

## 인도의 미래 도시를 책임질 스마트시티

### 관전포인트

- 인구의 35% 이상 빈민가에 거주. 이를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스마트시티
- 모디 총리의 지휘 하에 ‘스마트시티 미션’으로 추진되는 인도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주목할 필요
- 2018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국-인도의 스마트시티 협력 관계
-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작용 중

### 정의

스마트시티란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통해 도시를 운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스마트시티는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등의 도시 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성요소로는 인프라,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등 5가지 요소가 있다. 과거 유비쿼터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신도시 개발이 중점이 었다면 스마트시티는 신도시와 기존 도시 개발을 중점으로 한다.

### 현황

모디 총리는 2015년에 ‘Made In India’로 제조업 강조와 동시에 ‘스마트시티 미션’을 내세웠다. 스마트시티는 인도의 가파른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경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2022년까지 전역에 1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이 목표였으나 코로나로 2024년까지 연장했다. 교통, 에너지·환경, 수자원·위생, 주거, 경제 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프로젝트 7,700여개 중 87% 가량 달성했다.

한국은 인도와 2018년 양국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위한 MOC를 맺고 2021년에는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 사업’으로 EDCF 차관 계약을 맺었다. MOC를 통해 ESS,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EDCF 차관 계약으로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 통행 요금 징수 시스템 등을 제공했다. 최근에는 수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관련된 논의가 오갔다. 수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수소의 활용뿐만 아니라 녹색수소 생산을 목표로 국내외의 다양한 수소 기업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국내 기업들은 중동 건설과 같은 해외 진출 경험, 국내외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제주도, 부천시 등이 교통체증, 실종신고 같은 도시 문제를 스마트 허브, AI CCTV 기술을 활용해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성과로 인도는 한국 업체들에게 관심이 많아 앞으로도 다양한 솔루션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기기부터 신재생 기술인 수소까지 한국과 인도는 다양한 면에서 스마트시티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스마트시티를 위해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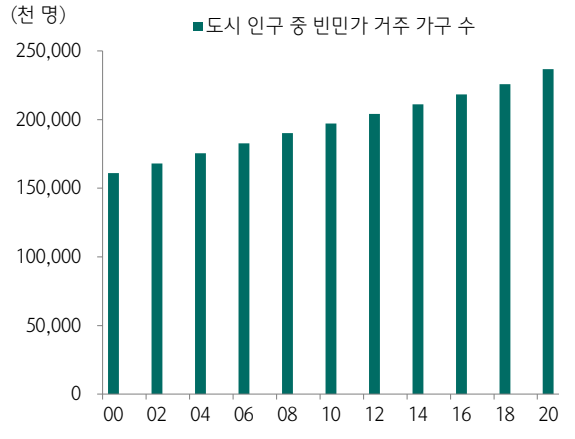
### 인도의 스마트시티 미션 진행 현황

(단위: 개)

프로젝트	완료	진행 중
통합 통제 센터	100	0
스마트 모빌리티	1,231	450
스마트 에너지	603	84
WASH	1,217	308
민관 합작	181	26
공공 공간	1,112	265
경제적 인프라	669	268
사회적 인프라	704	169
스마트 거버넌스	546	138

주: WASH=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  
 자료: 하나증권

### 인도 도시 인구 중 빈민가 거주 가구 수



자료: UN HABITAT, 하나증권

###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삼성물산	028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보스포럼에서 인도 뭄바이 스마트시티 개발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li> <li>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건설, IoT,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5년간 진행</li> </ul>
에스퓨얼셀	288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개최된 한국, 인도 수소 협력 포럼에 참여하여 민간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로 참여</li> <li>스마트팜 연계 건물용 연료전지 개발 경험 있어 수소 스마트시티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수혜 전망</li> </ul>
제이엔케이이더	126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개최된 한국, 인도 수소 협력 포럼에 참여하여 민간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로 참여</li> <li>산업용가열로 인도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수소충전인프라로 인도 시장에 추가 진출</li> </ul>
HD현대건설기계	267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건설기계 3사 중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업력 가지고 있어</li> <li>인도의 도시화율 증가함에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혜 기대</li> </ul>

자료: 하나증권

## ‘중국 → 인도’로 변하고 있는 공급망

### 관전포인트

- 중국을 중심으로 편성됐던 공급망이 코로나 19 이후 공급망 이원화, 정치적 갈등 등의 이유로 인도로 이동
- IPEF, Quad 등 인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출범되면서 서방 국가들은 인도와 협력 강도를 높이는 중
- 2025년까지 스마트폰 생산의 25%를 인도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애플과 삼성전자
- 인도 정부는 반도체 투자에 적극적이거나 아직 인프라, 공정 차이로 국내 기업은 유보적 입장

### 정의

공급망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생산해 운송까지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과거 통신 및 운송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계화가 진행됐다. 각 국가별로 경제적 우위를 지닌 제품, 상품에 집중하며 전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을 형성했다. 이에 글로벌 분업화를 통해 다양한 국가를 거쳐 하나의 완제품이 완성됐다. 하지만 코로나 19 이후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 현황

과거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었다면 이제는 인도가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장 이전의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 19 이후 높은 중국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인도의 인건비는 중국의 30% 정도 수준으로 낮고, 인구의 2/3가 생산가능인구로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제조업 환경에 안성맞춤이었다. 정치적인 이유로는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는 점이다. 최근 서방 국가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때부터 미중 갈등으로 관세 부과, 반도체법, IRA법안 등으로 중국을 견제해왔다. 또한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하며 무역, 공급망 등의 협력으로 14개국과 공급망을 재편성하였다.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은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을 공격적으로 높이고 있다. 애플의 경우 2021년 인도에서 생산 비중이 1%였다면 22년 7%로 증가하고, 향후 25%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삼성전자도 2021년 생산 비중을 20%까지 올리고 2025년에 25%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S 시리즈, 폴더블 같은 플래그십 제품 생산도 증가시키면서 인도 시장을 함께 공략하고자 한다. 이에 스마트폰 부품 협력사도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이 같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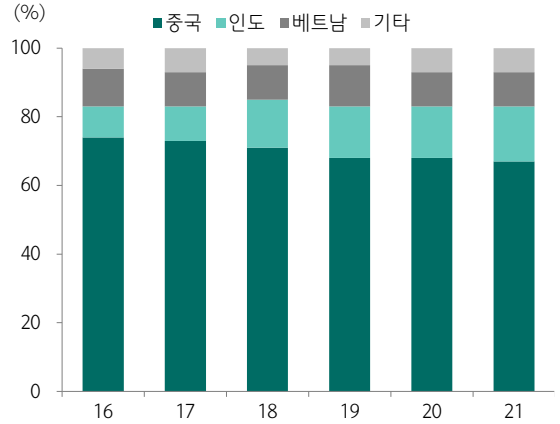
반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는 달리 국내 기업들은 인도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허브로 새롭게 자리 잡고자 한다. 이에 인도에 공장 설립 시 7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현지 투자를 이끌어냈다. 마이크론, AMD, 램리서치 등의 미국 기업들은 인도에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국내와 미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고, 인도와 국내의 메모리 공정 차이로 인도 시장이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 IPEF 구성 국가 14개국



자료: 미국-아세안 기업협의회, 하나증권

## 국가별 스마트폰 생산량 비중 추이



자료: Counterpoint, 하나증권

## 공급망 재편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삼성전자	005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부터 인도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생산 확대 예정으로 과거 중저가에서 프리미엄폰 비중 확대</li> <li>2025년까지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 2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li> </ul>
드림텍	192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 노이다 지역에 2024년부터 스마트폰 부품 모듈 공장 가동 목표</li> <li>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지문인식, 센서, 전원키 등 부품 모듈 만들어 공급</li> </ul>
이랜텍	054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 인도에서 휴대폰용 배터리팩, 휴대폰용 충전기 등 생산</li> <li>23년 3분기 기준 인도에서의 매출액 43% 차지하며 지역 기준 가장 높은 매출액 기록 중</li> </ul>
애플	AAP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년 3월 기준 아이폰의 7%가 인도에서 생산됐고, 향후 25%까지 생산 비중 확대할 것</li> <li>프리미엄 폰 수요 증가로 지난해 2분기 인도가 아이폰 판매량 세계 5위에 올랐어</li> </ul>

자료: 하나증권



##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지속 성장이 가능한 K-방산

### 관전포인트

- 가격 경쟁력과 빠른 공급 능력을 갖춘 K-방산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전통적인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레이더, 보행로봇, 드론 등 적용 분야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
-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MRO 시장 성장 예상
- MRO 사업을 위한 주요 부품 국산화 제품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목이 필요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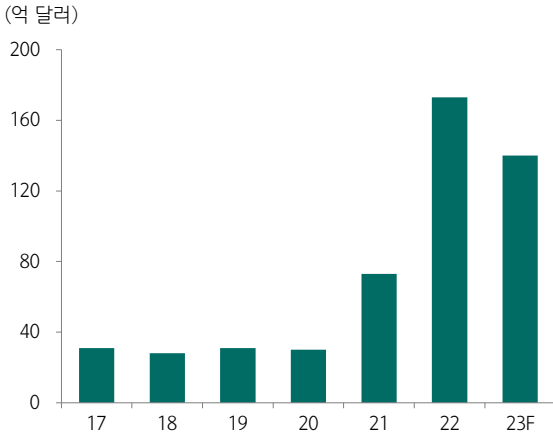
방산이란 ‘방위 산업’의 줄임말로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산업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무기나 탄약 등 전투기구부터 군인의 피복이나 군량 등 비전투용 군수물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국방력 형성에 요소가 되는 총, 포, 항공기, 전자 장비 등 무기 장비의 생산 및 개발 등을 담당하는 산업이다. 특징적인 요소로는 1) 제품의 가격보다는 방위가 목적이기 때문에 성능이 우선시되며, 2) 국가 보호 차원에서 높은 가격이라도 수요가 있고, 3) 군사적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진보라 빠르다는 특징을 지닌다.

### 현황

한국은 분단 국가로 각 종 무기체계에 대한 생산 능력 및 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뤄왔으며, 이에 따른 국내 방산업계 수출 규모는 2022년 기준 한화 약 22.5조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 및 무기 종류 다변화로 2년 연속 글로벌 상산 수출 상위 10위권 내에 진입한 상황이다. 전쟁으로 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낀 유럽의 NATO 국가 폴란드는 한국 방산 기업들과 수십조원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해 K-방산 무기가 소진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성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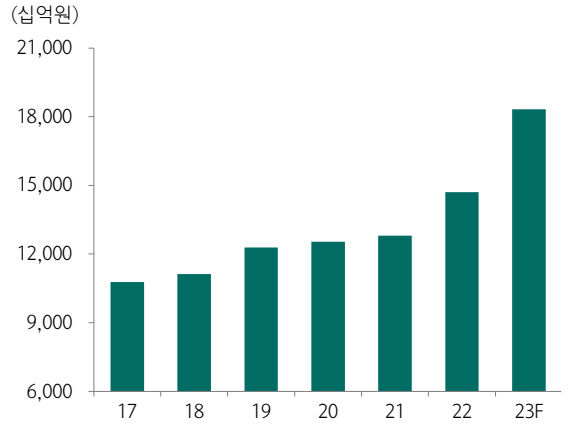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가격 경쟁력과 빠른 공급 능력을 갖춘 K-방산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12월에는 방산 분야 수출 금액 약 1.3조원을 기록했다. 해군 함정, 전차, 자주포 등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고도화로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부터 군용 우주인터넷, 군용 특화 사족 보행로봇, 군용 무인기(드론) 등 적용 분야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특히, 무기 체계 시장 규모 대비 사후 관리 서비스를 요하는 MRO(유지, 보수, 정비) 사업의 비중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MRO 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MRO 사업을 위해서는 주요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관련 부품을 생산을 영위하는 기업 또한 수혜가 예상된다.

### 방산 수출 규모 추이



자료: 국방부, 하나증권

### 주요 방산 업체 매출 추이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 방산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폴란드향 K-9과 호주 레드백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li> <li>단기적으로는 자주포 관련 사업, 장기적으로는 전차 관련 사업으로 꾸준한 성장 기반 마련</li> </ul>
현대로템	064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2 전차, 차륜형장갑차, K1/K1A1 전차 등 국내 전차 관련 사업 영위</li> <li>폴란드향 K2 전차 외에도 전쟁으로 증가하는 전차 수요를 대응해 추가 수주 가능성 고조</li> </ul>
LIG넥스원	079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공과 같은 정밀유도무기와 감시정찰, 항공전자 등에 이르는 각종 방산 사업 진행</li> <li>중동향 천공 수출을 베이스로 수주잔고 확보 완료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 존재</li> </ul>
SNT다이내믹스	0035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산용 변속기와 자주포 등의 방산 분야 매출 확대 국면</li> <li>전반적인 자주포 변속기, 전차용 변속기 등의 방산 관련 수주 증대에 따른 성장 기대</li> </ul>
STX엔진	077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1A1, K-9자주포 등 다양한 특수 디젤 엔진 설계</li> <li>수출형 예인음탐기 개발 사업과 천무 디젤엔진 국산화 개발 업체로 선정, 수출 증가 기대</li> </ul>

자료: 하나증권

## 재건 사업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큰 기회 요인이 있을 것

### 관전포인트

- 최근 재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전쟁으로 인한 재건 사업
-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를 위한 비용은 향후 10년간 한화 약 990조원으로 천문학 적인 금액
-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포괄적 재건 지원을 약속한 상황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
- 재건 사업에 대한 수혜는 업종 전반에 있을 전망이지만 기 수행 레퍼런스를 지닌 기업이 유리할 것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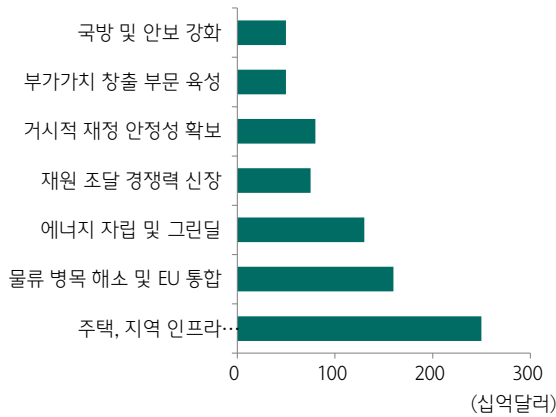
재건은 건물이나 조직 등 허물어지거나 사라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뜻하며, 이념이나 사상 등도 포함한다. 포괄적인 의미로는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으로 수술 등의 행위 이후 외관이나 형태 또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의미로도 사용된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 현황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재건 지원 및 재건 사업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복구를 위해 향후 10년간 약 한화 99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EU 등과 재건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건 지원 및 협력에 나선 상황으로 한국의 경우 '원팀 코리아'의 일환으로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도시개발 및 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지원에 적극적인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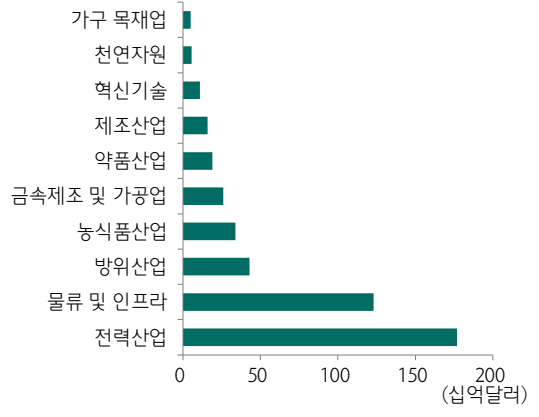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으며, 9월 3억달러의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해 20억달러 이상의 포괄적 재건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또한 민관합동재건협력단은 재건 6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 주요 물자 지원 및 건설 등 대규모 수출을 통한 실적 성장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재건 사업에 대한 수혜가 한화 약 70조원 수준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재건 사업에 대한 수혜는 업종 전반에 있을 전망으로 현지와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수행 레퍼런스 및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 우크라이나 재건 7대 프로그램별 예상 최대 비용



자료: URP, 하나증권

### 우크라이나 플랫폼 부문별 투자 잠재력



자료: 어드벤처투자우크라이나, 하나증권

###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HD현대건설기계	267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미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중국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 존재</li> <li>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과 재건 사업 협력 논의 진행</li> </ul>
삼부토건	001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댐, 도로 등 국가 인프라 시설에 대한 풍부한 경험 보유</li> <li>우크라이나 전쟁복구 재건 사업 관련한 MOU 체결 이력 존재</li> </ul>
도화엔지니어링	002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교통, 에너지 등 SOC 전문 엔지니어링 사업 영위</li> <li>과거 키예프-오데사 구간 도로 재건 사업 계약 이력 존재</li> </ul>
다산네트웍스	0395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워크 사업자로 광케이블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 영위</li> <li>우크라이나 국영 전력기관과 초고압 지중선 설비 도입을 논의하며 기대감 고조</li> </ul>

자료: 하나증권

## 각국의 치열한 우주 산업 경쟁

### 관전포인트

- 우주 산업은 미사일 방어 체계임과 동시에 각국의 협력 통로이자 상업용 기회 요인
-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우주 산업 경쟁은 치열한 상황
- 한국 정부는 예산을 늘려가는 과정에 있으며, 우주개발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
- 올해 하반기 중장기 우주탐사 방향성 수립 및 핵심 임무 로드맵 수립될 예정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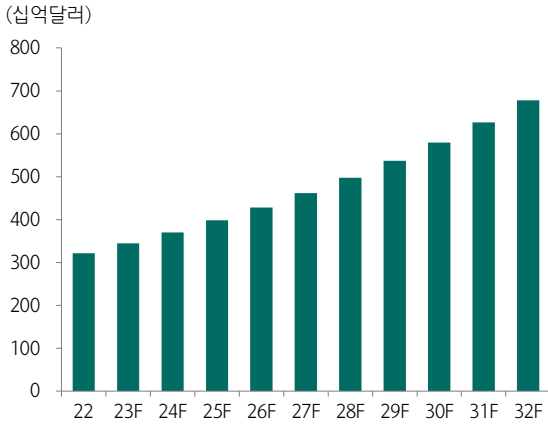
우주 산업은 지구의 궤도를 넘어서는 관련 부품 등을 제작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뜻하는 의미이다. 지식/기술 집약 산업이며, 규모의 경제가 큰 미래산업으로 위험 부담이 크고, 공급 독점과 수요 독점이 서로 맞서 있는 쌍방 독점적인 특징을 지닌다. 우주선이나 인공위성, 미사일 등의 경제활동을 뜻하는 우주 산업과 항공기의 몸체, 엔진 등을 제조하는 항공 산업을 합친 항공 우주 산업이 우주 산업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인데, 통상적으로 우주 산업이라 하면 항공 우주 산업의 개념으로 많이 쓰인다.

### 현황

우주 산업은 위성을 이용한 정보 수집 이후 미사일 방어 체제(MD)의 핵심이기 때문에 방위 산업과 연관성이 깊으며, 각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우주선 프로젝트 등 협력의 통로로도 작용하는 산업이다. PwC가 발간한 ‘달 시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40년 한화 약 230조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각국의 우주 산업 경쟁은 치열하다. 미국의 경우 머스크가 이끄는 SpaceX는 작년에만 약 100여개의 로켓을 발사하며 상업용 우주 활동에 선두로 나서고 있으며,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민간 달착륙선사업(CLPS) 우주탐사체 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중국은 올해 1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상업용 우주선 ‘퓨처X’를 올해 선보일 예정이며, 일본은 지난 1월 20일 세계에서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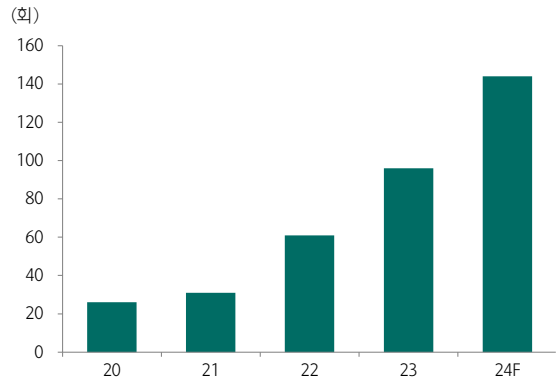
한국의 우주 산업은 정부 주도의 산업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정부는 2022년 12월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 내 우주산업에 관련된 예산을 약 2배 늘리고 2045년까지 전 세계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로 ‘제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 중장기 우주탐사 방향성 수립 및 핵심 임무를 확정할 계획으로 우주탐사의 새로운 로드맵이 수립될 예정이다.

##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규모 및 전망치



자료: URP, 하나증권

## Space X 로켓 발사 횟수 추이



자료: 어드벤처자우크라이나, 하나증권

## 우주 산업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한국항공우주	047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수용 항공기 수주 계약으로 호실적 기반 확보</li> <li>스페이스X와 2021년 차세대중형위성 발사체 계약 체결 이력 존재</li> </ul>
인텔리안테크	189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상용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지속 수요 증가와 제품군 다양화에 따른 성장 기대</li> <li>저궤도 통신 대형 고객사 OneWeb의 본격적인 상용화 선전에 따른 기대감 존재</li> </ul>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274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주 항공에 사용되는 부품과 특수소재 공급 및 우주 발사체 관련 생산 사업 이력</li> <li>2016년 인수한 미국 자회사 캘리포니아 메탈이 스페이스X에 우주항공용 특수소재 납품</li> </ul>
제노코	361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수주건인 광케이블 양산 매출 증가에 따른 호실적 달성</li> <li>22, 23년 이어졌던 위성통신, 항공우주 관련 수주를 기반으로 장기 성장 기반 마련</li> </ul>

자료: 하나증권

# 찾아보기 1. 테마별

2024년 하나증권 산업 테마 가이드

구분	테마	종목코드	종목명	페이지	
A	ADC	141080	레고컴바이오	3	
	ADC	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3	
	ADC	196170	알테오젠	3	
	ADC	298380	에이비엘바이오	3	
	AI 신약 개발	069620	대웅제약	9	
	AI 신약 개발	003850	보령	9	
	AI 신약 개발	310210	보로노이	9	
	AI 신약 개발	226330	신테카바이오	9	
	AI 신약 개발	000100	유한양행	9	
	AI 신약 개발	001630	종근당홀딩스	9	
	AI 신약 개발	388870	파로스아이바이오	9	
	AI 신약 개발	128940	한미약품	9	
AI 신약 개발	195940	HK이노엔	9		
AI 신약 개발	001060	JV중외제약	9		
C	CXL	253590	네오셈	19	
	CXL	092870	엑시콘	19	
	CXL	394280	오픈엠택테크놀로지	19	
	CXL	432720	켈리타스반도체	19	
G	GPT스토어	413640	비아이매트릭스	13	
	GPT스토어	411080	샌즈랩	13	
	GPT스토어	047560	이스트소프트	13	
	GPT스토어	355390	크라라우드웍스	13	
	GPT스토어	041020	플라릭스오피스	13	
	GPT스토어	030520	한글과컴퓨터	13	
H	HBM	005930	삼성전자	15	
	HBM	451220	아이엠티	15	
	HBM	122640	에스티	15	
	HBM	039030	이오테크닉스	15	
	HBM	217190	제너셈	15	
	HBM	079370	제우스	15	
	HBM	089030	테크윙	15	
	HBM	042700	한미반도체	15	
	HBM	000660	SK하이닉스	15	
O	OLED	213420	덕산네오룩스	21	
	OLED	090460	비에이지	21	
	OLED	104830	원익머트리얼즈	21	
	OLED	007810	코리아씨키트	21	
	OLED	239890	피엔에이치테크	21	
	OLED	161580	필옵틱스	21	
	OLED	034220	LG디스플레이	21	
	OLED	108320	LX세미콘	21	
	X	XR	190510	나무가	23
		XR	085670	뉴프릭스	23
XR		263600	덕우전자	23	
XR		053450	세코닉스	23	
XR		291230	엔피	23	

구분	테마	종목코드	종목명	페이지	
ㄱ	고령화	145720	덴티움	37	
	고령화	032620	유비케어	37	
	고령화	049070	인탑스	37	
	고령화	085660	차바이오텍	37	
	공급망 재편	192650	드림텍	55	
	공급망 재편	005930	삼성전자	55	
	공급망 재편	AAPL	애플	55	
	공급망 재편	054210	이랜텍	55	
	ㄴ	무인운반로봇	217500	러셀	41
		무인운반로봇	251630	브이원텍	41
무인운반로봇		007820	에스엠코어	41	
무인운반로봇		056080	유진로봇	41	
무인운반로봇		117730	티로보틱스	41	
무인운반로봇		370090	퓨런티어	41	
ㄷ	반려동물	049770	동원F&B	35	
	반려동물	368970	오에스피	35	
	반려동물	018620	우진비앤지	35	
	방산	012450	한화아어로스페이스	57	
	방산	064350	현대로템	57	
	방산	079550	LIG넥스원	57	
	방산	003570	SNT다이나믹스	57	
	방산	077970	STX엔진	57	
	비만 치료제	170900	동아에스티	7	
	비만 치료제	389470	인벤티지랩	7	
ㄹ	비만 치료제	087010	펩트론	7	
	비만 치료제	128940	한미약품	7	
	소비시장	004370	농심	51	
	소비시장	003230	삼양식품	51	
	소비시장	090430	아모레퍼시픽	51	
	소비시장	051900	LG생활건강	51	
	소비재	337930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31	
	소비재	018290	브이티	31	
	소비재	352480	씨앤씨인터내셔널	31	
	소비재	090430	아모레퍼시픽	31	
ㅁ	수소	336260	두산퓨얼셀	49	
	수소	288620	에스퓨얼셀	49	
	수소	005380	현대차	49	
	수소	298040	효성중공업	49	
	수소	005490	POSCO홀딩스	49	
	스마트시티	028260	삼성물산	53	
	스마트시티	288620	에스퓨얼셀	53	
	스마트시티	126880	제이엔케이이더	53	
	스마트시티	267270	HD현대건설기계	53	
	스마트팩토리	018260	삼성에스디에스	43	
ㅂ	스마트팩토리	056190	에스에프에이	43	

구분	테마	종목코드	종목명	페이지
	스마트팩토리	322180	티라유텍	43
	스마트팩토리	022100	포스코DX	43
○	알츠하이머 치료제	182400	엔케이맥스	5
	알츠하이머 치료제	206650	유바이오로직스	5
	알츠하이머 치료제	086890	이수애플스	5
	알츠하이머 치료제	085660	차바이오텍	5
	엔터테인먼트	041510	에스엠	27
	엔터테인먼트	12287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7
	엔터테인먼트	182360	큐브엔터	27
	엔터테인먼트	352820	하이브	27
	엔터테인먼트	035900	JYP Ent.	27
	온디바이스 시	399720	가온칩스	17
	온디바이스 시	058470	리노공업	17
	온디바이스 시	009150	삼성전기	17
	온디바이스 시	005930	삼성전자	17
	온디바이스 시	222800	심텍	17
	온디바이스 시	200710	에이디테크놀로지	17
	온디바이스 시	394280	오픈엠티테크놀로지	17
	온디바이스 시	080220	제주반도체	17
	온디바이스 시	094360	칩스앤미디어	17
	온디바이스 시	000660	SK하이닉스	17
	우주 산업	189300	인텔리안테크	61
	우주 산업	361390	제노코	61
	우주 산업	274090	켄코어에어로스페이스	61
	우주 산업	047810	한국항공우주	61
	우크라이나 재건	039560	다산네트웍스	59
	우크라이나 재건	002150	도화엔지니어링	59
	우크라이나 재건	001470	삼부토건	59
	우크라이나 재건	267270	HD현대건설기계	59
	육아	092730	네오팜	33
	육아	013990	아가방컴퍼니	33
	육아	159580	제로투세븐	33
	음식료	003230	삼양식품	29
	음식료	103840	우양	29
	음식료	000080	하이트진로	29
	음식료	097950	C제일제당	29
	의료 시	315640	답노이드	11
	의료 시	328130	루닛	11
	의료 시	338220	뷰노	11
	의료 시	322510	제이엘케이	11
	의료 시	384470	코어라인소프트	11
ㅅ	태양광	011930	신성이엔지	47
	태양광	009830	한화솔루션	47
	태양광	322000	HD현대에너지솔루션	47
	태양광	456040	OCI	47
ㅇ	폴더블	090460	비에이지	25

구분	테마	종목코드	종목명	페이지
	폴더블	179900	유티아이	25
	폴더블	051370	인터플렉스	25
	폴더블	441270	파인애플	25
	폴더블	161580	필옵틱스	25
	풍력	034020	두산에너빌리티	45
	풍력	297090	씨에스베어링	45
	풍력	112610	씨에스윈드	45
	풍력	229640	LS에코에너지	45
	풍력	100090	SK오션플랜트	45
ㅎ	협동로봇	348340	뉴로메카	39
	협동로봇	454910	두산로보틱스	39
	협동로봇	277810	레인보우로보틱스	39
	협동로봇	389500	에스비비테크	39
	협동로봇	058610	에스피지	39
	협동로봇	388720	유일로보틱스	39



## 찾아보기 2. 종목별

2024년 하나증권 산업 테마 가이드

구분	종목명	종목코드	테마	페이지	
C	C제일제당	097950	음식료	29	
H	HD현대건설기계	267270	스마트시티	53	
	HD현대건설기계	267270	우크라이나 재건	59	
	HD현대에너지솔루션	322000	태양광	47	
	HK이노엔	195940	AI 신약 개발	9	
J	JW중외제약	001060	AI 신약 개발	9	
	JYP Ent.	035900	엔터테인먼트	27	
L	LG디스플레이	034220	OLED	21	
	LG생활건강	051900	소비시장	51	
	LG이노텍	011070	XR	23	
	LIG넥스원	079550	방산	57	
	LS에코에너지	229640	풍력	45	
	LX세미콘	108320	OLED	21	
O	OCI	456040	태양광	47	
P	POSCO홀딩스	005490	수소	49	
S	SK오션플랜트	100090	풍력	45	
	SK하이닉스	000660	HBM	15	
	SK하이닉스	000660	온디바이스 AI	17	
	SNT다이내믹스	003570	방산	57	
	STX엔진	077970	방산	57	
ㄱ	가온칩스	399720	온디바이스 AI	17	
L	나무가	190510	XR	23	
	네오셈	253590	CXL	19	
	네오팜	092730	육아	33	
	농심	004370	소비시장	51	
	뉴로메카	348340	협동로봇	39	
	뉴프릭스	085670	XR	23	
	C	다산네트웍스	039560	우크라이나 재건	59
대웅제약		069620	AI 신약 개발	9	
덕신네오룩스		213420	OLED	21	
덕우전자		263600	XR	23	
덴타움		145720	고령화	37	
도화엔지니어링		002150	우크라이나 재건	59	
동아에스티		170900	비만 치료제	7	
동원F&B		049770	반려동물	35	
두산로보틱스		454910	협동로봇	39	
두산에너빌리티		034020	풍력	45	
두산퓨얼셀		336260	수소	49	
드림텍		192650	공급망 재편	55	
답노이드		315640	의료 AI	11	
E		러셀	217500	무인운반로봇	41
		레고컴바이오	141080	ADC	3
		레인보우로보틱스	277810	협동로봇	39
	루닛	328130	의료 AI	11	
	리도공업	058470	온디바이스 AI	17	
	보령	003850	AI 신약 개발	9	

구분	종목명	종목코드	테마	페이지
A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337930	소비재	31
	브이원텍	251630	무인운반로봇	41
	브이티	018290	소비재	31
	비아이매트릭스	413640	CPT스토어	13
	비에이치	090460	OLED	21
	비에이치	090460	폴더블	25
	삼부토건	001470	우크라이나 재건	59
	삼성물산	028260	스마트시티	53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ADC	3
	삼성에스디에스	018260	스마트팩토리	43
O	삼성전기	009150	폴더블	25
	삼성전기	009150	온디바이스 AI	17
	삼성전자	005930	공급망 재편	55
	삼성전자	005930	HBM	15
	삼성전자	005930	온디바이스 AI	17
	삼양식품	003230	소비시장	51
	삼양식품	003230	음식료	29
	샌즈랩	411080	CPT스토어	13
	세경하이테크	148150	폴더블	25
	세코닉스	053450	XR	23
O	신성이엔지	011930	태양광	47
	신테카바이오	226330	AI 신약 개발	9
	심텍	222800	온디바이스 AI	17
	씨앤씨인터내셔널	352480	소비재	31
	씨에스베어링	297090	풍력	45
	씨에스원드	112610	풍력	45
	아기방컴퍼니	013990	육아	33
	아모레퍼시픽	090430	소비시장	51
	아모레퍼시픽	090430	소비재	31
	아이엠티	451220	HBM	15
O	알타이오젠	196170	ADC	3
	애플	AAPL	공급망 재편	55
	에스비비테크	389500	협동로봇	39
	에스에프에이	056190	스마트팩토리	43
	에스엠	041510	엔터테인먼트	27
	에스엠코어	007820	무인운반로봇	41
	에스퓨얼셀	288620	스마트시티	53
	에스퓨얼셀	288620	수소	49
	에스피지	058610	협동로봇	39
	에이디테크놀로지	200710	온디바이스 AI	17
O	에이비엘바이오	298380	ADC	3
	엑시콘	092870	CXL	19
	엔케이맥스	182400	알츠하이머 치료제	5
	엔피	291230	XR	23
	엠로	058970	스마트팩토리	43
	엠아이큐브솔루션	373170	스마트팩토리	43

구분	종목명	종목코드	테마	페이지
	오픈엠티테크놀로지	394280	온디바이스 AI	17
	오픈엠티테크놀로지	394280	CXL	19
	와이엔티엔터테인먼트	122870	엔터테인먼트	27
	우양	103840	음식료	29
	우진비앤지	018620	반력동물	35
	원익머트리얼즈	104830	OLED	21
	유바이오로직스	206650	알츠하이머 치료제	5
	유비케어	032620	고령화	37
	유일로보틱스	388720	협동로봇	39
	유진로봇	056080	무인운반로봇	41
	유티아이	179900	폴더블	25
	유한양행	000100	SI 신약 개발	9
	이랜텍	054210	공급망 재편	55
	이수엠피스	086890	알츠하이머 치료제	5
	이스트소프트	047560	GPT스토어	13
	이오테크닉스	039030	HBM	15
	인벤티지랩	389470	비만 치료제	7
	인탑스	049070	고령화	37
	인터플렉스	051370	폴더블	25
	인텔리인테크	189300	우주 산업	61
ㄱ	제너셈	217190	HBM	15
	제노코	361390	우주 산업	61
	제로투세븐	159580	육아	33
	제우스	079370	HBM	15
	제이엔케이이더티	126880	스마트시티	53
	제이엘케이	322510	의료 AI	11
	제주반도체	080220	온디바이스 AI	17
	종근당홀딩스	001630	SI 신약 개발	9
ㄴ	차바이오텍	085660	알츠하이머 치료제	5
	차바이오텍	085660	고령화	37
	칩스앤미디어	094360	온디바이스 AI	17
ㄷ	켄코어에어로스페이스	274090	우주 산업	61
	코리아써킷	007810	OLED	21
	코스맥스	192820	소비재	31
	코어라인소프트	384470	의료 AI	11
	퀵리타스반도체	432720	CXL	19
	큐브엔터	182360	엔터테인먼트	27
	크라우드웍스	355390	GPT스토어	13
ㄹ	테크윙	089030	HBM	15
	티라유텍	322180	스마트팩토리	43
	티로보틱스	117730	무인운반로봇	41
ㅁ	파로스아이바이오	388870	SI 신약 개발	9
	파인엠티텍	441270	폴더블	25
	펍트론	087010	비만 치료제	7
	포스코DX	022100	스마트팩토리	43
	플라리스오피스	041020	GPT스토어	13

구분	종목명	종목코드	테마	페이지
	필옵틱스	161580	OLED	21
	필옵틱스	161580	폴더블	25
ㅎ	하이브	352820	엔터테인먼트	27
	하이비전시스템	126700	XR	23
	하이트진로	000080	음식료	29
	한국항공우주	047810	우주 산업	61
	한글과컴퓨터	030520	GPT스토어	13
	한미반도체	042700	HBM	15
	한미약품	128940	SI 신약 개발	9
	한미약품	128940	비만 치료제	7
	한화솔루션	009830	태양광	4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	방산	57
	현대로템	064350	방산	57
	현대차	005380	수소	49
	효성중공업	298040	수소	49





## Analyst

	성명	직책	담당분야	사내번호	E-mail
센터장	황승택	센터장/전무	리서치센터 총괄	7519	sthwang

기업분석실	최정욱	실장/상무	기업분석실 총괄, 은행/카드/지주	3643	cuchoi
미래산업팀	김두현	팀장	미래산업 총괄	7775	Kimdoohyun11
	최재호	연구위원	미래산업	7719	chlwogh2002
	김규상	선임연구원	미래산업	7573	Kimq
	조정현	선임연구원	미래산업	7650	Chunghyuncho
	김성호	선임연구원	미래산업	7509	Shkime
	박희철	연구원	미래산업 RA	7785	parkh

글로벌투자분석실	이재만	실장/팀장	글로벌투자분석실 총괄, 국내/선진국투자전략	7547	duke7594
투자전략팀	임승미	선임연구원	포트폴리오	7786	seungmi_lim
	강윤형	연구원	포트폴리오 RA	8024	kangyh



# 하나증권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